"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2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29일(음력 9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한중일 불교 '황금 유대' 30년, 세계 평화 이끌자" '세계 평화와 상생'을 기치로 시작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30주년을 맞았다. 한중일 불교계는 10월 17~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 나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교류회의에서 한중일 불교도 300여 명은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학술 강연회, 공동선언문 채택, 순례 등을 통해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 평화 의지를 다졌다. 사진은 베이징 광제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마치고 촬영한 기념사진. **중국 베이징=김내영 기자** 〈관련기사 5면〉

조계종, 내년 예산 1054억원 편성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1054억 여원으로 편성했다. 제37대 집행부의 임기 마무리에 맞춰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복구 등 주요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총무원 기획실은 10월 2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기조를 발표했다. 총무원은 올해 8월 20일 제30차 종무회의에서 종무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지침을 결의하고 기획실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10월 2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보고하고, 10월 22일 제38차 종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내년은 제37대 집행부의 원만 회향과 제38대 집행부의 출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해"라며 "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신속한 복구와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확산 등 집행부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기치로 초발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까지 사부대중과 함께 정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실, 10월 23일 언론브리핑
2026년 예산안 편성 기조 발표
일반 · 특별회계 각 325 · 729억원
기념관 화재복구 52억원 반영도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추가경정 예산 포함 기준)보다 5억 7281만원(-15%)이 줄어든 325억 2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찰별 책정액 현실화를 위해 중앙분담금은 2.5%(1억 4690만원), 직할분담금 5.5%(7740만원), 특별분담금 1.1%(7700만원), 직영분담금 6.2%(4억 6100만원), 문화유산분담금 2.2%(1억 5526만원) 증액됐다. 법인분담금과 미수분담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반면 기타사업수입은 올해에 비해 74.1%가 감액됐는데, 이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공모전에서 기획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작품접수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세출에서는 기념관 화재복구비에 시설 관련 비용이 포함되면서, 환경개선과 시설 보수에 투입되는 별도 예산은 감소했다. 또 제37·38대 총무원장 이·취임법회 개최를 고려해 총무부 예산이 일부 상향됐으며,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포교부는 삼원통합에 따른 인건비·관공비 조정, 종교교과서 개발사업 종료 등으로 전체 예산은 감액됐지만, 출가장려 사업(3000만원)과 동련 40주년 후원의 날 지원(5000만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사회부는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9월 종정 성파 스님의 하버드대 초청 전시회 개최비 6000만원을 편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홍보실 예산이다. '힘한 불교' 확산과 미래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홍보영상 제작, 서포터즈 운영, 유튜브·SNS 콘텐츠 제작비 등이 포함되면서 1억 9540만원(59.5%) 증액, 총 예산 5억 2400만원이 배정됐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9억 1225만원(10.5%) 증액된 728억 9600만원 규모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등 시설 복구가 내년 2월 완료 예정인 만큼 복구비 52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10·27법난기념관 건립비는 설계비 등을 포함한 88억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자재 구축 사업 국고 자부담 12억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지원금 3억원, 국제선명상대회 자부담 1억 3000만원, 선명상센터 건립 국고 자부담 3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조계종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5일 개원하는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 사면심사위 구성
30일 이내로 '심사 종료'

총무원장 · 종회 · 본사 추천 등
위원 9인…위원장 장명 스님
10월 28일 마감 후 심사 예정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합승가' 실현을 위한 '사면·복권·경감'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심사를 진행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장명 스님(직지사 주지)이 맡는다.

조계종은 10월 22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교구본사주지회의가 추천하는 3인의 사면심사위원을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추천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중앙종회의장 추천으로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과 진각(통도사)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 추천으로 장명·정덕·무공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도림 스님의 9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면·복권·경감은 징계자들의 자숙과 참회를 바탕으로 종단 화합을 도모하고 종단에서의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공권정지 수징자 중 징계기간 3분의 1이 경과한 자 △제적 또는 법계강급 수징자 중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에 한에 이뤄진다.

절차는 호법부의 기초조사를 거쳐 총무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수 마감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통과자에 대한 보고서는 총무원장이 검토한 뒤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종정 스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첫 회의는 총무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호법부장·호계원 사무처장을 제외한 7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심사위원회는 첫 회의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는 즉시 총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회의 직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장명 스님을 호선했다. 오는 10월 28일 사면·복권·경감 대상자 접수 마감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총림 해제' 동화사, 11월 14일 주지 선출

후보자 등록 11월 2~4일
동화사특위, 보고서 제출

동화사가 11월 14일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3월 총림 해제 이후 법정 공방, 주지 직무정지 등으로 혼란을 빚어 온 동화사가 새로운 주지 선출로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조계종 제9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민 스님)는 11월 14일 오후 1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을 다룰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이며 거주승 신고 기간은 10월 21~27일, 구성원명부 열람 기간은 11월 5~7일이다.

한편, 중앙종회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설암 스님, 이하 동화사특위)는 11월 5일 개최하는 정기회에 회계 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동화사특위는 10월 17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동화사와 말사의 종무행정 및 재무회계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사안들이 확인됐다"며 "'사찰예산회계법' 제37조 2항과 3항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사찰예산회계법'은 사찰에 재산 손실을 입혔을 때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호법부 고발과 사회법 제소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수령 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안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청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기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

성파 스님, 군 장병 격려…“참된 불자 돼라”

상월결사, 10월 18일 육군훈련소
수계법회·문화공연 ‘잠시멈춤’
성파 스님 증명…장병 3500명

논산=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논산 육군훈련소의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참된 불제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 봉선사 주지)는 10월 18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수계법회와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을 개최했다. ‘잠시멈춤’은 상월결사가 올해 5월 의정부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문화법회다. 수계법회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군 장병 3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법석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증명법사,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전계사로 동참해 갓 입대한 훈련병들에게 부처님의 계율 정신과 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10월 18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수계법회 증명법사로 참석해 군 장병 3500여 명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1부 수계법회에서 법석에 오른 성파 스님은 “군 장병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한마디로 법문을 대신했다. 스님의 덕담에 장병들은 “큰스님!”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전계사 자광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유인으로 이끄는 길”이라며 “오계는 해탈과 자유를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불자의 생활신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음주를 금하는 오계를 차례로 설하고 “계율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등불”이라고 말했다.

장병들은 합장한 채 “지키겠습니다”를 외치며 오계를 수지했고, 이어 참회와 연비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군 포교 원력도 한자리에 모였다. 상월결사와 통도사는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지원금 5000만원을 호국연무사 주지 혜총 스님에게 전달했고, 선운사·월정사·봉선사·표충사 등도 후원금을 통해 군 포교에 힘을 보탰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장병 포교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사”라며 “군법당이 수행과 평화의 도량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문화공연에서는 퓨전국악그룹 퀸, 국악가수 최예림, JH콰이어 어린이합창단, 할리퀸 댄스팀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고, 장병들은 박수와 환호로 무대를 즐겼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종정 성파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진응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 중앙종회의원 심우·진각·해량·덕림·법륜 스님 등이 함께했다. 또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육군참모차장), 류승민 육군훈련소장, 육·해·공군 현역 법사단, 불교어머니회, 전북·익산포교사단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회의 의미를 더했다.

문제는 ‘종교편향’…끝내 사과 안 한 장동혁 대표

10월 21일, 진우 스님 재예방
불교계 현안 청취 수준에 그쳐
합장했지만 ‘종교편향’엔 침묵

기독교 편향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발언과 합장 대신 목례로 인사해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21일 봉은사 구생원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다시 예방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에는 합장 반배로 예의를 갖췄지만, 논란이 된 기독교 편향적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이번 방문은 애초 ‘사과의 뜻’을 전할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불교계의 현안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재차 예방했다. 이번에는 합장 반배로 예의를 갖췄지만, 논란이 된 기독교 편향적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장 대표는 “더 일찍 찾아뵈려 했으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늦어졌다. 죄송하다”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불교계 현안을 말씀해 주시면 잘 챙기겠다”고 인사했다.

진우 스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쓰거나 거칠게 쓰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 그것이 부메랑처럼 인과응보로 돌아온다”며 “정치도 계산이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언행과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방 자리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마무리됐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자리에서도 논란과 관련한 사과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 후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달 전 취임 인사 이후, 예산심의를 앞두고 불교계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이날 예방 이유를 밝혔다.

“합장 대신 목례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부족해 불편함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짧게 답했고, 기독교 편향적 발언에 입장을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예방에서 합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것은 마음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불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그간 장동혁 대표의 ‘합장’이 아닌 ‘종교편향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 사과와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10월 21일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직접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대응을 자제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가 종교편향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아, 중앙종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내영 기자

회당 대종사 열반 62주기 추념불사 봉행

10월 16일 전승원 무진설법전
“깨달음 나누는 진각행자 되자”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0월 16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2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하고 종조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추념불사에는 총인 덕일 대종사를 비롯해 기로스승 경정·수성 정사, 통리원장 능원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현강 정사, 위덕대 총장 보성 정사, 총금강회장 정명 각자 등 서울교구 스승과 유가족, 신교도, 학교법인 회당학원, 진각복지재단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추념사를 통해 “해가 거듭되면서 종조님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과 그리움이 더할 때, 진각행자들의 화합과 종단의 발전을 위한 서원 또한 보다 더 굳건해지고 있다”며 “내년 진각기원 80년과 2년 후의 창교 80주년을 맞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종조님의 무진서원이 성취되도록 더욱 정진하자”고 전했다.

이어 “우리 모두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진각행자가 되자. 모든 진각행자들이 포교와 교화가 수행이라는 믿음으로 밝게 깨우쳐서 실천하면 밀엄정토는 생활 속에서 시나브로 실현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총무부장 법운 정사(서울교구청장)는 강도발원에서 “우리 진각행자들은 종조의 가르침인 창교 정신과 교법을 길이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안으로는 본심을 깨닫고, 밖으로는 자비를 실천하겠다”며 “종단의 실천이념인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이 땅에 뿌리내려 일체 중생들이 심인진리에 제도되고 밀엄정토가 구현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한편, 진각종은 이날 서울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지인 불승심인당,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 미국 LA 불광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도 62주기 열반절 불사를 일제히 봉행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사 주지에 담화 스님 재임

진우 스님 10월 22일 임명장 수여
담화 스님 “조계사 화합에 최선”



조계종 총본산이자 직영사찰인 서울 조계사 주지(사찰관리인)에 담화 스님이 재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담화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조계사는 한국불교 총본산이며, 총무원과 같은 공간에 위치한 직할사찰로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갖춘 한국불교의 상징”이라며 “주지 스님이 그동안 사찰 운영과 포교·전법에 큰 성과를 거둬 다시 한번 중요한 소임을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조계사는 주지 스님과 부주지 스님, 대중 스님들, 그리고 신도조직이 함께 힘을 모아 역량을 발휘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심하고 상호 협조 속에서 조계사의 위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화 스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것을 채우고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기회를 주신 만큼 종단과 긴밀히 협력해 조계사 화합과 신도조직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화 스님은 성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수계(사미계 수지)했다. 금강정사 주지, 연운사 주지를 지내고 조계종 총무원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김내영 기자

봉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행

불기 2569(2025)년 법계 품서식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종 정 운악 대륜
총무원장 혜일
고시위원장 지광
고 시 위 원 도정, 지명, 동심

법계품서대상자

대종사(명사) 붕원스님, 동청스님, 지언스님, 경담스님, 제법스님
종사(명덕), 종덕, 대덕(혜덕) 일명, 법광, 지원, 동심, 지안, 정암, 석천, 무상, 지흘, 지명, 동철, 상천, 원경, 진명, 해정, 보륜

품서식 일시 불기 2569(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품서식 장소 일붕선원 대법당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 전화 02) 991-8175, 8904 전송 991-8176

봉은사, 당간지주로 불교중흥 새 기틀 세우다

10월 21일, '당간지주 불사 낙성식'
진우 스님 증명 깃발 게양·제막
역대조사 다례재로 업적·뜻 기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 봉은사는 10월 21일 일주문 앞에서 '당간지주 조성불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 제막식을 하는 모습.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개산 1231주년을 맞아 천년고찰 대가람의 위상을 높이는 당간지주 조성으로 불교중흥의 새 기틀을 세웠다.

봉은사는 10월 21일 일주문 앞에서 '당간지주 조성불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세워 깃발을 거는 장대인 '당간(幢竿)'을 지탱하는 두 개의 돌기둥으로, 부처님 법이 머무는 도량임을 상징한다.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했으며 주지 원명 스님과 선원장 관도 스님 등 봉은사 대중 스님, 최진식 신도회장, 공덕주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당간지주 조성은 지난해 주지 원명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심사찰 봉은사에서 기도와 법회, 대규모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법석마다 깃발을 걸 수 있는 여법한 도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통방식의 불사를 추진한 것이다.

봉은사는 올해 2월부터 사부대중의 모연을 통해 불사를 본격화했다. 당간지주는 기단과 석축, 청동당간 33개, 그리고 최상부 봉황 장식으로 구성된 높이 15m 규모로 10월 17일 복장의식을 거쳤다.

진우 스님과 원명 스님 등 내빈들은 제막과 함께 깃발을 게양하며 봉은사가 도심 속 수행·포교 중심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이번 봉은사 당간지주 낙성은 봉은사가 간직해 온 불교의 정신과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세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 중심사찰이자 도심 속 천년고찰인 봉은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불법홍포와 수행, 그리고 사회참여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도량"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봉은사가 다시금 수행과 포교, 한국불교 중흥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낙성식 후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역대조사 다례재'가 봉행됐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헌향·헌다·헌화로 창건주인 신라 연회 국사를 비롯해 조선시대 억불정책 속에서도 도량을 지켜낸 보우·서산·사명 대사 등 총 9명의 조사 스님들의 업적과 원력을 기렸다.

원명 스님은 "연회 국사께서 창건하신 이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는 불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행과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봉은사를 이끌어 왔다"며 "다례재는 조사 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정한 차를 올리고, 그 원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명상'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물질적 풍요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은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설사 극락에 있더라도 괴롭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결국 내 업은 내가 해결하는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사람이 감정의 업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명상과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며 "선명상은 감정을 멈추는 수행이다. 처음엔 5초, 5분부터 시작해 가능하다면 1시간까지 감정을 관찰하며, 기분 나쁜 일도 내가 만들어 낸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감정을 줄이고 소멸시키는 것이 선명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아트·AI로 마음돌봄 체험해 볼까

동국대 종학연구소, 'AI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

11월 2·14일 두 차례 개최
"AI와 명상 접목 긍정효과 기대"

한국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이슈가 됐으며 접근성 높은 새로운 형태의 마음돌봄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AI를 기반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케어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동국대의 주도로 열린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10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14일 두 차례 걸쳐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 지원 사업인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 행사는 AI·생체신호·미디어아트 기술과 명상이 접목돼 개인 맞춤형 마음 진단과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유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AI 미디어 아트 체험 △대화형 AI 심리상담 체험 △디지털 마음 진단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AI 미디어아트 체험은 김원화 작가의 '인간의 거울(2025)' 전시로 이뤄진다. 김 작가의 '인간의 거울'은 AI가 해석한 참여자의 감정 정보를 이미지·자막·음성 결합으로 시청각화해 제공하는 미디어아트로, 참가자는 자신을 판단하는 주체가 타인이나 내가 아닌 AI로 넘어가는 체험하게 된다.

11월 2일 열리는 첫 행사는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 B구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11월 14일 두 번째 행사는 동국대 중앙도서관 IF존에서 열린다. 14일에는 개막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AI와 함께하는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돌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대화와 명상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개막식 직후에는 현장 체험존이 개방되며 직접 AI 심리상담과 생체신호 진단, VR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스님은 "AI와 생체신호, 예술이 결합된 이번 행사는 AI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현대의 선경(禪鏡)'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며 "불교의 수행적 전통과 AI와 함께하는 과학기술이 만나,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능력을 시민이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AI시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활용과 '마음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각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제33회 불미전 대상 최윤수의 '그대에게 가는 길'

조계종, 불미전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 3점, 우수상 4점 등


대상 수상작. 최윤수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

한국 불교미술 분야의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대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불미전)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조계종은 "10월 12일 봉은문화회관에서 심사를 진행해 제33회 불미전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미전 공모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8% 증가한 219점(회화 108점, 조각 28점, 공예 58점, 미디어아트 25점)이 출품돼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대상에는 조각 부문의 최윤수 작가가 출품한 '그대에게 가는 길'이 선정됐다. 최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은 형상과 의미, 기술과 감성의 조화를 두루 갖춘 수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회화 부문 최현희 작가의 '불입심상', 공예 부문 홍우진 작가의 '대면'(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회화 부문 조미영 작가의 '화엄경약찬게'(국가유산청장상)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회화 부문 김정심 작가의 '펜 하나로 그리는 만다라', 김민지 작가의 '김룡사 신중도', 조각 부문 안경진 작가의 '숨', 공예 부문 김민주 작가의 '금빛서사'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회화 부문 이상훈 작가의 '범어용승', 김미희 작가의 '천수관음보살도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조민경 작가의 '회암사, 다시 그 자리에서', 이명수 작가의 '개심사영산회 괘불탱', 조각 부문 남진석 작가의 '수월관음 그리고 피안', 최경락 작가의 '미완의 미륵불', 공예 부문 송은선 작가의 '동제은입사발' 등 총 7작품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특선 10작품, 입선 31작품이 선정돼 불교미술의 다양성과 세대 간 예술적 교류를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전시는 12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출가자 모집

11월 21~30일, '쉼, 그리고 시작'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제1기 단기출가학교 출가자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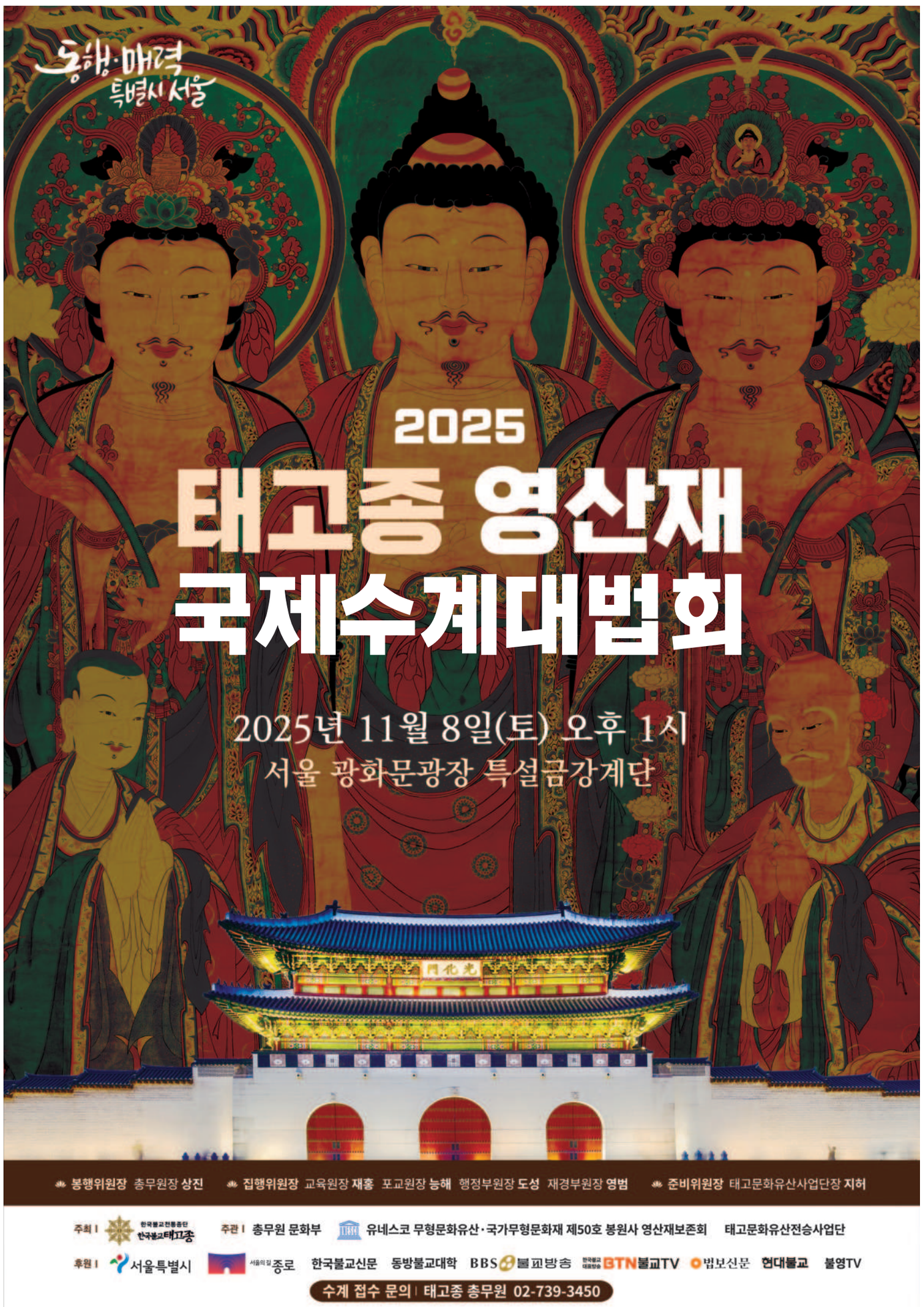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선운사가 주관하는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이 11월 21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된다.

조계종은 제37대 집행부 핵심주요 과제인 출가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출가 체험학교 운영을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출가 체험학교는 정식 출가에 앞서 실제 출가 수행자에 준하는 일상과 청규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예불, 발우공양, 운력 등의 기본 일상생활과 염불, 참선, 간경 등 수행자의 삶을 직접 익히게 된다.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은 출가 수행 희망자,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 남 6명, 여 6명을 모집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여러 지도법사 스님들이 참가자들이 올바른 불교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예정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청년세대 및 일반 대중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자아 성찰 및 내적 성장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seonunsa.org) 참조. 063-561-1422

임은호 기자



장애인 포교 20년 보리수아래 '더불어 함께'

10월 21일, 창립 20주년 공연
자작시 낭송 · 음악 연주로 감동
최명숙 대표 "서로 도우며 발전"


보리수아래는 10월 21일 서울노인복지센터 TOP작은공연장에서 장애인포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공연 '보리수아래 스무살 청년되어 노래하다'를 개최했다. 공연 후 동참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포교의 새로운 길을 다지며 함께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보리수아래는 10월 21일 서울노인복지센터 TOP작은공연장에서 장애인포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공연 '보리수아래 스무살 청년되어 노래하다'를 개최했다. 조계종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장애인전법단이 후원한 이번 공연은 장애인포교 20주년을 맞아 '더불어 함께'하는 기념공연으로 진행됐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년간 보리수아래와 함께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길을 열정과 실천으로 걸어온 장애불자, 음악인, 작가 모두가 이날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장애인 불자들은 자신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자작시와 음악 연주에 아름답게 담아냈다. 또 다양한 예술인들이 동행,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 감동을 더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각계각층에서 보리수아래의 20살을 축하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20년 동안 장애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잇고 부처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 온 보리수아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도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비의 공동체로 더욱 깊고 넓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이자 국악인 최준 씨의 여는 음악으로 공연의 문이 활짝 열렸다.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중복장애인 유재필 시인은 휠체어를 타고 이주연 도서출판 해조음 대표의 도움으로 축시 '부처님 씨앗'을 낭송해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함께한 오시우 씨의 피아노 선율은 감성을 자극했다.

이어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는 동행의 노래 '그대 잠시만이라도 장돌뱅이'를, 개화사 호선회 회장 조남선 시인은 동행의 축시 '성(聖)스러운 것'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애불자 시 낭송도 이어졌다. 고명숙 보리수아래 회원은 김귀순 장애인활동자원사의 도움으로 '어떤 모빌'을, 홍현승 회원은 김영길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와수필의만남 동아리 김영길 씨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나도 우린'을 읊어 내려 동참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황상미 소프라노가 축하의 노래를, 명상음악가 범중 스님과 최준 피아니스트는 불심 하모니 '아리랑 한송이 꽃'을 선보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통기타 동아리의 우정의 노래 '만남'에 이어 법련사 불일 합창단과 국제포교사 합창단, 위즈덤더원 합창단 연합인 보리수합창단이 '너와 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동행의 노래로 전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최명숙 대표는 "보리수아래가 40살, 60살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돕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면서 발전해 나가겠다"면서 "회원들이 진정한 수행자가 돼 불법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 아래는 2005년 6월, 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결성됐다.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고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문학,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활동과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셋째주 토요일 월례법회 △장애인불자 위한 포교활동 및 신행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창작 및 발표기회 제공 △문화예술 교육 △개인작품집출판 지원 및 음반제작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템플스테이 및 해외 불교문화 탐방 △아시아 장애인 교류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02-959-2611

후원 : 하나은행 163-910009-28505 보리수아래



친구와 놀면서 명상을 배워요

동국대 RISE미래키움운영센터(센터장 전미경)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서울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은석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다양한 명상 수업을 진행했다. 오감 활용 명상과 음악·신체 활동 기반 놀이 명상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제공=동국대

인천경기 포교사들, 구릉산 묵언행선

10월 18일, 구리 보현사 일대서
80여 포교사 수행 의미 되새겨



조계종 포교사들이 무언 속 행선 수행하며 선명상의 의미와 수행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단장 백순심)은 10월 18일, 구리 보현사(주지 진효 스님) 일대에서 선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현사 주지 진효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 80여 명이 참여했다. 포교사들은 보현사 숲길을 따라 구릉산 별하공원까지 약 1시간 동안 묵언 속에 걷는 행선 수행을 진행했다. 숲길 속 자연의 숨결과 함께 마음을 비우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내면의 평온을 느끼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묵언행선 후에는 진효 스님이 직접 선명상의 의미와 수행의 가치를 전하는 법문을 이어갔다.

이날 진효 스님은 법문에서 '해사모단탄거해(解使毛端呑巨海), 능장개자납수미(能將芥子納須彌)'라는 십육나한 중 첫 번째 빈두로 존자의 게송을 인용해 "우리 눈썹 끝의 이슬방울에도 바다가 깃들어 있고, 겨자씨 속에도 수미산을 담을 수 있다"며 "오늘의 걷기명상 수행이 훗날 선업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종단의 '선명상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포교사단은 전국 각 지역단에 지역의 특성과 수행 환경에 맞는 선명상 행사를 권고했고, 이에 인천경기지역단이 구리 보현사에서 이번 걷기대회를 개최해 많은 포교사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임은호 기자

노인 위기상담 불교계가 나선다

불교상담개발원, 24개 기관 함께
생명존중문화 확산 업무협약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은 10월 20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조계종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및 산하 24개 노인복지기관과 함께 '노인 위기상담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고독, 우울, 관계 단절 등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기관들은 노인 자살예방과 위기상담 서비스 확대, 상담 전문인력 양성, 인식개선 활동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초고령사회에 당면한 지금은 예방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어르신 복지를 위해 각 기관의 열정에 보답하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종봉 스님은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복지관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살피고,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상담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 노인복지시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불교상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노인심리상담 및 교육, 자살예방교육,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팔도장터관광열차 타고 가을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
4개 지역 사찰, 장터 여행

지난 3월과 6월에 운영됐던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이 11월에도 찾아온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백신)과 함께 11월 1일 서울역에서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당일형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이번 기차여행은 경부선을 따라 △반야사(충북 영동) △법주사(충북 보은) △신안사(충남 금산) △동화사(대구) 등 총 4개 사찰에서 차담, 유기농 쿠킹, 걷기 명상, 단주 만들기 등 템플스테이 체험 후 지역 전통시장 및 인근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반야사는 '달도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을 지닌 월류봉과 영동 와인터널, 영동전통시장 방문을 하고, 법주사는 힐링 테마정원 청남대에서 가을을 만끽하고, 대전중앙시장으로 이동한다.

신안사는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한밭수목원과 대전 시민들의 피크닉 명소로 알려진 이응노 미술관을 방문하고, 동화사는 템플스테이 체험 후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지역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이번 11월 기차여행은 다가오는 가을 단풍 시기에 맞춰 가족, 친구, 연인과 일상 속 부담 없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경제를 비롯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다시 한 번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상품 예약과 문의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1544-7755에서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에드워드 리 셰프의 '행복한 밥상'

서울노인福서 소갈비찜 1천 인분
조리 · 배식 어르신과 교류 시간



에드워드 리(Edward Lee) 셰프가 어르신 세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영양 가득 맛있는 밥상을 대접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10월 17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 1층 만발식당에서 '행복한 밥상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어르신 세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을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을 바탕으로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에 후원금 5000달러(한화 약 720만원)를 전달하고, 구글 관계자와 함께 소갈비찜 1000인분을 직접 조리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 조리뿐만 아니라 배식에도 직접 참여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갈비찜을 준비했다. 모든 어르신들이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금강산 내 사찰, 남북교류 가교역할 기대"

민추본, 10월 22일 연구포럼
김일한 동국대 연구교수 발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의 불교문화유산이 남북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사진〉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가 10월 22일 동국대 사회과학관 M308 첨단강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원산갈마 지역의 불교문화유산과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과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을 불교문화유산을 통해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일한 연구교수는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과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유산을 살펴보고, 남북불교 교류사업으로의 연계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금강산에는 약 200개의 사찰과 암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와 뗄 수 없는 성지로, 원산에는 태조 이성계의 원찰인 석왕사가 있다. 즉, 원산갈마지역은 불교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올해 7월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은 한반도 최초의 복합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복합유산은 3%뿐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매우 높다.

이날 김 연구교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관리'에 집중했다. 김 연구교수는 "금강산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남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금강산이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남북이 관광협력으로 활용한다면 세계적 명소로 불리기에 손색없는 최고의 관광지역으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원산지역의 불교문화유산(이현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팀장) △원산갈마 불교역사문화의 거점 – 조선 왕실의 상징사찰 석왕사(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도 발제됐다. 임은호 기자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

“인류·지구 이롭게”…한중일 불교도 ‘평화’ 염원

중국 베이징=김내영 기자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중일 불교도들의 기도와 발원이 중국 광제사에 울려 퍼졌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베이징에서 중국대회를 열고 삼국 불교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인류공동체의 조화로운 세상이 실현되길 한 마음으로 염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는 10월 19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의 첫 순서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교류회의는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 나아가자’를 주제로, 한중일 불교도 300여 명이 모여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 평화 의지를 다졌다.

한국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 등 종단협 소속 24개 종단의 스님 109명으로 꾸려졌다. 중국불교에서는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을 단장으로 150여 명이, 일본불교에서는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 스님을 단장으로 31명이 동참했다.

삼국 불교계는 광제사 대웅전에서 각국 전통의식으로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끊임없는 연대와 실천으로 공생과 화합을 이뤄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한국 대표단은 오분향례와 칠정례, 석가모니불 정근, 반야심경 봉독 순서로 법회를 진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교류대회의 인연공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인류 화합, 세계평화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법회에 이어 삼국 대표단은 우의빈관 2층 취영청으로 자리를 옮겨 개막식을 개최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은 먼저 중국을 찾은 한일 불교계 스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30주년을 맞아 오늘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이끈 고 조박초 회장 등 선현들에게 깊은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삼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우호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상호 이해와 우정 속에서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10월 19일, 평화기원법회로 본대회
한중일 불교 30년 황금유대 확인

우의빈관서 개막식 · 학술 강연도
진우 스님 ‘선명상’ 교류 확대 제안
삼국 대표 선물 전달로 내년 기약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30주년을 계기로 만남과 대화를 넘어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공동 실천과 협력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 갈등, 국제 분쟁 등 인류 공동의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는 어느 한 국가나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그 해답은 불교의 수행과 사유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국 불교계가 힘을 모아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매개로 한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스님은 “선명상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하는 수행법”이라며 “사회적 치유와 갈등 해소,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상생을 이끄는 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을 대신해 정토종 기획조정실장 나고시 호하쿠 스님은 “삼국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하고 불법의 흥성과 인심의 안정,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기원하면서 이번 회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새로운 한중일 3국 불교의 친선교류’를 주제로 학술강연회도 열렸다. 강연회에서는 불교 교류의 근본정신을 되새기고, AI 발전과 문명 전환기에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삼국 불교 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물질과 과학만능의 시대를 넘어 정신문명을 강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는 것이다. 능원 정사는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중일 불교계는 만찬과 선물 전달을 끝으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한국대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했다. 만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자비와 연대의 등불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멀리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본대회에 앞서 한국 대표단은 10월 17일 청대 황실사찰인 옹화궁을 참배하고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북경시불교협회장인 호설봉 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한국 대표단은 옹화궁을 참배하고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북경시불교협회장인 호설봉 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삼국 대표 스님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새로운 한중일 3국 불교의 친선교류’를 주제로 열린 학술강연회 모습.

“무연대자 동체대비로 인류 평안에 기여”

한중일 불교도 공동선언문 채택
차기 교류회의는 한국에서 열려

한중일 불교도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평화와 중생 구제를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적극 펼치겠다고 서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법의 근본을 굳건히 다질 것 △대중의 내면 건강에 주목할 것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할 것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삼국 불교도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자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삼국 간 민간 교류와 국민 간 우호 증진을 통해 다양한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어떠한 폭력과 충돌도 반대하고, 자비와 지혜로 갈등을 해결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총 총무원장)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 스님, 한중일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다케가쿠쇼 스님은 이번 대회 공동선언문과 차기 대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한국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진호 스님(원융총 총무원장)과 명생 스님(중국), 다케가쿠쇼 스님(일본)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의상 조사 1400주년 맞아 '화합' 한마당

범어사, 10월 17일 산사음악회
국악 · 7080 어우러진 축제의 장
어린이합창단 · 명창 공연 등 다채
난치병 어린이돕기에 500만원도
10월 27일까지 '독립' 주제 전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는 의상 조사 탄신 1400주년을 맞아 10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사음악회 '국악과 7080의 만남'을 개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음악으로 전하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의상 조사 탄신 1400주년을 맞아 10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사음악회 '국악과 7080의 만남'을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의상 조사의 원융사상과 범어사의 자비정신을 펼치는 문화공연으로,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지역사회 나눔을 함께 담는 자리로 열렸다.

음악회는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격려사와 주지 정오 스님의 인사말, 범어사 신도회장 이윤희 회장의 축사로 막이 올랐다. 이어진 첫 무대는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이 '달팽이의 하루', '이웃집 토토로'를 선보이며 맑은 음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열었다.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은 공연 직후 정필윤 지휘자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천진불 어린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했다. 이어 판소리 신예 나하은과 국악인 박성희 명창이 '화조도', '배 띄워라' 등 다채로운 전통음악 무대를 펼쳐 감동을 더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 전달식'도 열려 정오 스님이 이창환 한국불자가수협회장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불자가수협회는 범어사 일주문 앞에서 주말 버스킹 공연을 이어가며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후 열린 7080 무대에서는 팝페라 가수 박가을이 '별을 캐는 밤', '아름다운 나라'를 불렀고, 가수 배종원은 '사랑만 남기고', '시절인연'을 열창했다. 우순실은 '잃어버린 우산', '꼬깃꼬깃 해진 편지'로 추억을 불러일으켰으며, 양하영 밴드는 '갯바위', '가슴앓이'로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그룹 건아들의 이창환 회장이 '젊은 미소', '이젠 안녕'을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정여 스님은 "올가을 범어사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히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금정산 자락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듯, 우리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가을의 고요함을 느껴 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통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이 고장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가 부처님의 자비심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전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오 스님은 "오늘은 의상 조사 탄신 1400주년과 범어사 개산 1347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국악과 7080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금정산의 맑은 기운 속에서 쉼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과 평화를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범어사 독립문화제 사진전을 개막했다. 개막식은 10월 16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1층 중정에서 열렸으며, 전시는 10월 27일까지 이어졌다. '연(連): 범어사, 독립과 평화를 잇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현대의 평화에 이르는 범어사의 근현대사를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높이 11m의 초대형 태극기 설치미술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주지 정오 스님이 직접 색을 칠한 검은색 태극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의미'가 담겼다.

부산 마하사, 황령산 유원지 수용재결 '승소'

문체부 동의 누락, 절차 중대 하자
36년 사찰림 지위, 법원서 재확인
문화유산 보호 우선, 개발논리 제동


마하사 전경.

부산 마하사(주지 대방 스님)가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없는 수용재결은 중대한 하자"라는 법원 판결로 부산시가 추진해 온 관광개발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0월 17일 마하사가 부산시·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 및 수용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재결은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무효로 확정됐다.

쟁점이 된 마하사 사찰림은 1989년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경내지'로 지정된 구역이다. 이후 명칭은 '전통사찰보존지'로 바뀌었으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법원은 △부산시가 1996년 해당 토지를 전통사찰 경내지로 인정해 비과세 처리한 사실 △사찰과 약 300m 거리의 지리적 연속성 △36년간의 관리·보존 기록 등을 근거로 사찰림의 역사적·공간적 일체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마하사 소유 사찰림 5개 필지의 강제수용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동일 구역 내 다른 필지 역시 같은 사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하사 주지 대방 스님은 "전통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분별한 개발논리를 넘어선 사법부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령산은 부산 불교의 상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2020년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안을 공고하고, 2021년 대림건설·롯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5층 전망대와 539m 길이의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해 왔다. 개발사업 부지에 마하사 사찰림이 포함되었으나 수용재결 과정에서 문체부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사찰림에 대한 강제수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곡하모니, 부산파라미타 합창제 대상

10월 19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문체부장관상 · 500만원 수여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오 스님, 회장 백명숙)가 10월 1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곡하모니(부곡여중)가 대상을 수상하며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지도교사상으로 부산교육감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사진〉

금상은 선화합창단(선화여중)이, 은상은 옥샘하모니(동래여중)가, 동상은 더블 에스(서면중)와 Brillante(동주여고)가 각각 수상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청소년들은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지만, 진정 멋진 인생은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합창제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완성한 행복한 이야기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수줍은 야생화와 시원한 숲의 향기, 함께 오르는 이들의 웃음과 격려가 있다"며 "이 합창제는 바로 그 '함께함의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격려사에서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더위와 태풍을 이겨내 가을의 열매로 돌아오듯, 오늘의 무대는 청소년들의 노력과 인내의 결실"이라며 "혼자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되살려 준 이번 합창제는 그 어느 음악회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발원사, 제4차 수륙무차평등대재 봉행

국가안녕 · 시민화합 발원



부산 발원사(주지 호법 스님)가 10월 16일 경내에서 '제4차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봉행하고, 국가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환영사 △격려사 △축사 △극락왕생발원 음성공양 △헌화 △영가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봉행위원장이자 주지인 호법 스님은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육지와 바다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친 모든 영가에게 부처님의 법을 베풀어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대재"라며 "오늘 인연 닿은 모든 분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축학원 해동고, 교직원 불교연수 봉행

현덕 스님 "학생, 부처로 보라"



부산 해동고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법인 영축학원(이사장 현덕 스님, 통도사 주지)은 10월 20일 해동고 교내 해동법당에서 '불교와 교육적 가치'를 주제로 교직원 불교연수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석에는 유원규 교감과 안정수 교법사를 비롯한 교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덕 스님은 "교직은 수천 배의 인욕 수행이 필요한 자리"라며 "화가 치밀 때 한 순간의 인욕이 곧 마음공부이며, 그 속에서 교육의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5년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
2025.
11.02. 일요일
11.14. 금요일
• 2025년 11월 02일(일) 10: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 B구역
• 2025년 11월 14일(금) 10:30 ~ 16:0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IF ZONE
• 주최/주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 참가비: 무료
주요 프로그램
디지털 마음진단 체험- 뇌파, 맥파 등을 실시간 측정 및 VR명상체험
대화형 AI심리상담 체험 - AI키오스크 감정 입력 및 심리검사 진행, 개인 맞춤형 명상(5분) 제공
AI 미디어아트 체험 - 김원화 작가의 〈인간의 거울〉 전시관람
dongguk UNIVERSITY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오직 참선' 월성 스님 가르침 계승하겠다"

10월 21일 법주사서 영결 · 다비식
1000여 대중 참석, 스님 추모
"스님의 원력, 자비행 큰 울림"

보은=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옹 월성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10월 21일 보은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진옹(震翁) 월성(月性) 대종사의 영결식이 10월 21일 보은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금오문도장의위원회가 21일 법주사에서 봉행한 영결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 불국사 회주 법달 대종사,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법주사 원로 설조 스님,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 법주사 율주 무상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을 비롯해 최재형 보은군수, 금강화 법주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되새겼다.

월성 스님은 1933년 음력 5월 4일 전북 남원군 아영면 두닥리에서 부친 박창만, 모친 하남순의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남원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오 스님을 은사로 구례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덕숭산 정혜사를 비롯해 봉암사, 칠불사, 도성암,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1994~96년 법주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금오 스님을 13년간 시봉하고 금오문도회 문장,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복천선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10월 19일 오전 4시 복천암에서 법납 72세, 세수 91세로 원적했다.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의 원력과 자비행을 이어받아 불법홍포와 중생구제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겠다"고 추모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은 "월성 대선사는 복천선원에서 50여 년을 한결같이 참선 정진으로 일생을 지내셨다. 또한 금오 대선사의 가풍을 이어 복천선원을 모범적으로 일구셨다"고 회고했다.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은 법어에서 "큰스님과의 이별을 애달파하고 그리워하는 대중들과 전 금오문도는 스님께 존경과 흠모를 보낸다. 스님께서 속히 우리 곁에 나투어 주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이어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큰스님들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후 스님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참석 대중들은 "스님, 불들어갑니다"를 외치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월성 스님의 초재는 보은 복천암, 2재는 옥천 용암사, 3재는 남원 대복사, 4재는 삼척 고봉암, 5재는 보은 문수사, 6재는 속리산 관자재암, 막재는 법주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화성 용주사 수륙대재…"국태민안 기원"

10월 18일, 대웅전 특설무대서
정조 효심 울려 퍼진 자비법음


화성 용주사는 10월 18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효찰대본산 용주사에서 유주무혼을 천도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화성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10월 18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용주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재는 시련의식으로 막을 열었다. 인로왕보살번을 선두로 호적, 취타대, 삼현육각, 연과 위패를 모신 신도들이 장엄한 행렬을 이끌며 불보살님과 고혼을 도량으로 모셔왔다. 이어 왕의 교지와 하사품을 전달하는 의식을 정명근 화성시장이 진행했다.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합창, 봉행사와 축사, 감사패 수여, 자비나눔 쌀 전달식, 라오스 불상 전달식, 축원, 법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륙대재 봉행위원장 성효 스님(용주사 주지)은 봉행사에서 "지금 함께 한 수륙의 영혼들은 복이 많은 존재"라며 "정조대왕의 부친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이 오늘의 용주사를 있게 했고, 그 발원이 이어져 고혼을 치유하는 수륙대재가 봉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요식에서는 라오스 중앙불교협회와 용주사 간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라오스 불상이 전달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와 라오스 스님들은 불상에 직접 기도와 축원을 올리며 양국 불교계의 연대를 다졌다. 또한 수륙재 동참자들이 시주한 쌀이 화성시에 전달돼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명복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수륙재를 봉행한 '효행과 치유의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수륙재로 세종대왕 원력 기리다

강진 무위사, 10월 18일 수륙재 재현…창작뮤지컬도


왕의 숭고한 뜻이 깃든 법회"라고 강조했다.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스님)가 10월 18일 대적광전에서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수륙대재는 1부 시련의식, 2부 법요식, 3부 회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위패를 이운하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대련, 관욕, 조전점안이운, 운수상단 의식이 이어졌다.

주지 법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명한 하늘 아래 월출산의 기운이 감도는 천년고찰 무위사에서 수륙대재의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의식은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한 세종대왕의 숭고한 뜻이 깃든 법회"라고 강조했다.

무위사 수륙대재는 1430년 세종대왕이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기리고, 고려 왕실과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현 주지 법오 스님에 의해 복원되어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무위사는 이번 수륙대재를 앞두고 10월 17일 대적광전 특설무대에서 창작뮤지컬 '세종의 꿈'을 공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 1426주년 개산대재

10월 18일, 특설무대서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10월 18일 대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 호남 제일도량으로서의 창건 정신을 되새기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수행 원력을 기리는 제1426주년 개산대재와 모악문화제를 봉행했다.〈사진〉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개산대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속에 스며들기를 발원하는 귀한 자리" 라며 "오늘의 개산대재가 과거의 빛나는 가르침을 현재에 이어 미래로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점심공양 후에는 '제2회 모악산 금빛가요제'가 열려 퓨전국악그룹 오감도, 아이돌 로커 오뮤오, 트로트 걸그룹 몸빼걸스, 가수 김용진 등이 무대를 선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인사, 제65회 보살계 수계대법회

10월 17~18일, 금강계단 등서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0월 17일부터 18까지 경내 금강계단, 법계탑 마당, 대적광전, 보경당 일원에서 '제65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대방광불화엄경〉 독경과 화엄시식이 함께 진행돼 불자들이 계율 정신을 되새기는 장엄한 법석으로 마련됐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 갈마아사리 경암 스님, 교수아사리 금강 스님(율학승가대학원장) 등 3사 7증 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됐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수계법문을 통해 "예(禮)와 계(戒)는 불자의 삶의 근본이며, 중심을 잃지 않고 예를 지켜 살아간다면 자신과 가정, 사회가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구례 천은사, 구례북중 전교생에 장학금

10월 21일, 28명에 840만원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가 지역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천은사는 10월 21일 구례북중학교 도서실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전교생 28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8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주지 대진 스님은 "앞으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북중학교 다니던 때가 행복했지' 하는 좋은 기억이 남도록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가을 산사음악회

10월 18일, 설법전서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는 10월 18일 설법전에서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음악회는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을 선율이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논산 쌍계사 주지 대륜 스님 취임

논산 쌍계사 주지에 대륜 스님〈사진〉이 10월 19일 취임했다.

쌍계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부주지 혜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 등 6교구 본말사 스님들이 함께했다.

주지 대륜 스님은 취임사에서 "기도하는 도량, 전법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륜 스님은 자비나눔의 쌀 1000kg을 양촌면 저소득층 250가구에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응공조계종 창종 14주년 기념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대종사)은 10월 19일 총본산인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1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을 비롯해 원로 수덕 스님, 교육원장 경담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해 창종의 의미를 되새겼다.

법운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중생구제와 세계평화의 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장흥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 개최

장흥 보림사(주지 정응 스님)가 10월 18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음악제는 침됐던 보림사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전하는 화합의 무대로 마련됐다.

주지 정응 스님은 인사말에서 "숲·역사·문학·음악이 어우러지는 비자림 음악제를 통해 지역에 생명력과 평화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각원사 제17회 효음악회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10월 18일 시민들과 효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17회 각원사 효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각원사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와 경내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불교의 가르침과 음악, 공양이 어우러진 시민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원사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량으로서 효와 나눔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주 금선암 제5회 금선보은문화제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은 10월 19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5회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금선암과 금선암 자비공덕회는 효행 실천으로 모범이 된 김정순 불자에게 효부상을 수여하고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자비공덕회는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에 라면 100박스, 송광정심원·정각주간보호센터 등에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상주사 체험관 개관 기념음악회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 스님)는 10월 18일 경내에 불교문화체험관을 개관하고 체험관 앞마당에서 축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주지 도연 스님은 "불교문화체험관이 군산시민과 방문객들이 수행과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진행된 산사음악회 상주사 비파라수합창단, 도립무용단, 김금희 국악팀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실상 자각하라…‘무소유’에 담긴 참뜻”

맑고향기롭게 · 길상사,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

인경 스님, ‘무소유’ 코퍼스 분석
고집멸도 기반으로 텍스트 분류
어리석음 관련 분류 빈도 가장 多
법정 스님이 경계한 건 ‘어리석음’
분석 바탕으로 ‘무소유 명상’ 제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원적 15주기를 맞는 법정 스님(1932~2010)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첫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는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재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명상상담 평생교육원장 인경 스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고집멸도에 기반한 마음치유적 이해’ 발제를 통해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를 전통 수행론이나 심리치료 모델로 사용하는 ‘고집멸도에 기반한 코퍼스(Corpus) 접근방식’에 의거해 분석했다.

인경 스님의 분석에 따르면 고(苦, 고통의 경험) 단계에서 〈무소유〉는 개인의 애착의 고통보다는 물질문명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고뇌가 두드러진다. 집(集, 고통의 원인) 분석에서는 남방불교의 ‘갈애’ 개념보다는 북방불교의 ‘삼독심’ 개념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탐욕(탐심·욕심) 4회, 성냄(불쾌·짜증·화·원망) 16회에 비해 어리석음(무지·오해 등)은 32회에 달할 정도로 비중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경 스님은 “법정 스님은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어리석음’으로 지목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편견적 오해, 고정관념의 얕은 지식에 갇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낸다고 진단했다”면서 “〈무소유〉의 진정한 메시지는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자각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소유〉 속 수필을 통해 고통의 소멸[滅]은 무지에서 벗어난 성찰에서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롭게 살아가기[道] 위한 방안으로는 ‘팔정도’와 ‘육바라밀’ 실천을 제시한다는 게 인경 스님의 설명이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는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과 발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촬영.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인경 스님은 ‘고집멸도에 기반한 무소유 명상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님이 제안한 ‘무소유 명상’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고집멸도’ 구조로 만든 8회기 프로그램이다.

인경 스님은 “〈무소유〉의 핵심된 메시지는 ‘소유하지 말라’, ‘마음 비움’의 미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바로 보라’는 깊은 통찰에 있다”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고전적 수필이 아니라 현대인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명상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상담학과 부교수의 ‘법정 스님의 사상과 초기불교’, 여태동 불교신문 기자의 ‘법정 스님의 민주화 운동과 전개 과정’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평온과 활력의 비법

⑮ 응무소주이생기심

應 無 所 住 而 生 其 心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는 붓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부처든 중생이든 모든 생명체는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사유의 여섯 기관[眼耳鼻舌身意, 六根]이 그에 대응하는 감각 대상[色聲香味觸法, 六境]을 만나 감정과 마음의 표상, 의지를 실현한다. 감각 기관과 대상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쾌와 불쾌, 만족과 불만족, 사랑과 분노를 만들어 낸다. 불쾌·분노·증오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랑과 나눔조차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개입되면 갈애와 집착이 되어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 거친 줄로 묶이든 황금줄로 묶이든, 속박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붓다의 가르침은 자유와 평온을 지향한다. 그래서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이에 상응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 붓다는 제자 수보리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應無所住而生其心).”

여기서 ‘머무는 바 없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도 마음이 묶이거나 갇히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을 내라’는 말은 자신의 뜻을 기꺼이 실천하라는 의미다. 전반부는 평온을, 후반부는 생기 넘치는 역동성을 상징한다. 이는 평온과 활력의 조화를 뜻한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묘행무주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풀이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나눔)를 행할지니,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은 보시이며, 소리[聲], 냄새[香], 맛[味], 감촉[觸], 마음 현상[法]에 머물지 않은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즉, ‘응무소주이생기심’의 가르침이 일상 속 실천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 그는 귀족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대화를 나누었다. 탁발할 때는 거친 음식도 경건히 받았으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소연에도 성심껏 답했다.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똥지게꾼에게는 ‘진정 향기로운 사람은 행위가 고결한 사람’이라 위로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뜻이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드러내기 쉽지만, 뜻이 다르거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입견이나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슬기롭게 마음을 다스려 껄끄러운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 편견과 집착으로 세상을 대하며 분노와 갈등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유럽 유일 불교국가 칼미키야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인도 국립박물관 소장 진신사리 일주일간 친견

인도와 러시아의 문화 교류를 위해 유럽의 유일한 불교국가인 칼미키야 공화국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운됐다. ‘더 힌두’, ‘인디아 뉴스 스트림’ 등의 외신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10월 13일 케샤브 프라사드 마우리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부주지사가 이끄는 인도 불교 대표단은 인도 공군의 특수 항공기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칼미키야 공화국의 수도 엘리스타로 이운했다. 이 사리는 인도의 국보로 지정된 근본 8탑 중 하나인 피프라흐와(Piprahwa) 스투파에서 발굴된 사리의 일부다.

현지 언론들은 “근본8탑에서 발굴된 사리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권의 불교국가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전하며 “사리가 공개되는 엘리스타의 황금사원에서부터 1km 가까이 사람들이 줄을 서 진신사리를 맞이하러 나왔다”고 현지 불자들의 열기를 전했다.

인도 문화부 관계자는 “이 행사는 인도 라다크 출신의 존경받는 고승이자 외교관이었던 19대 바쿨라 린포체의 유산을 지속시키고 쇠퇴한 부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2003년 인도에서 입적한 바쿨라 린포체는 생전에 출가자임에도 인도 국회의원과 주몽골 인도 대사를 역임했다. 특히 몽골 대사 시절에 공산화로 인해 파괴 직전에 몰린 몽골불교를 되살리고 더불어 칼미키야, 부랴트, 투바와 같은 러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중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도 엘리스타 최대의 사찰인 황금사원에 전시된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전시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순례자들이 사원을 참배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인도에서 불교대표단은 법회와 문화전시 등 다양한 불교문화 활동을 벌였다.

특히 국제불교도연맹(IBC)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성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불탑에서 발굴된 진신사리가 고대에 봉안된 이후 재발견되기까지의 여정을 추적하는 전시를 선보였으며, 인도 국립박물관 역시 소장 불교미술품의 일부를 전시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도와 러시아 불교계는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의 IBC 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양해 각서는 이 지역에 전해 온 불교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이러한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칼미키아는 유럽 대승불교의 중요한 중심지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칼미키야의 수도에 소재한 엘리스타 황금사원에 전시된 진신사리. **사진 출처=더힌두**

世界가 인정한 聖鐘社 명품 범종이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남해 부소암종
(중량 600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며, 범종계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종사 범종이
세계 최초로 입체조각기법을 범종에 도입하여, 한국 범종 수준을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현재 화천군민의 종(2000관) / 중국 남보타사종(1000관)을 본 기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입체감, 생동감, 화려함, 정교함을 자랑하는 성종사의 명품 범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

극장서 만난 템플스테이…“특별한 하루 됐어요”

문화사업단 · CGV동대문 협업
‘고요극장’ 템플스테이 선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과
차담 · 음식, 소리선명상 체험
참가자들 “접근성 좋아” 호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8일 CGV동대문에서 진행된 ‘도심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고요극장’에서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진각 스님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주위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연꽃은 진흙밭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묻으면 더럽고 냄새가 나잖아요. 하지만 연꽃은 그것을 양분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죠.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양분으로 삼아 수행하세요.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껍질을 깨고 자유로워져야 돼요.”(진각 스님)

영화가 상영돼야 할 주말 도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모인 청중들이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음의 담아놨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고, 스님들은 차분하게 듣고 조언했다. 마치 템플스테이를 하듯이.

10월 18일 오후 극장에 이뤄진 행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과 CGV동대문이 협업해 진행한 ‘도심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고요극장’의 한 장면이다.

‘고요극장’은 깊은 산속 사찰이 아닌 도심 한복판 극장에서 열리는 이색 템플스테이로, 팝콘 대신 따뜻한 뽕잎차와 다식(호두·금귤·올리브 정과, 송화 다식)을 즐기며 스님과 함께 토크콘서트, 음식명상, 소리선명상 등 다양한 체험을 나누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템플스테이 다회 참가자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부안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진각 스님과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선일 스님이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에게 특별하고 신선한 하루를 선사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선일 스님이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소리선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님들의 지도로 명상을 체험하는 사람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스님들과의 토크콘서트. 대중들은 스님의 출가 계기부터 인생상담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았고, 스님들은 친절한 답변과 맞춤형 조언을 전했다.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연에 선일 스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다.

“제가 여러분께 기념품으로 다식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받을 겁니다. 반대로 먹다 남은 쓰레기와 여기 떨어진 머리카락을 기념품으로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스님이 주신 거야’하고 몇날 며칠을 꺼내 보겠어요? 굳이 쓰레기를 품고 꺼내 보며 괴롭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인연은 억지로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 밀어낸다고 밀어내지지 않는다”면서 “과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다니면서 괴로워 말고 스스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잊지 말라. 좋은 인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응원했다.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진각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스님들은 사찰 이동이 잦은 편인데 그때마다 저는 방을 잘 정리하고 가려 합니다. 정리를 잘해 놓고 마지막에 사진 한 장을 찍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가져갈까, 버릴까를 고민하는데 인생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이번 생에 무엇을 남기고, 내생에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누구의 조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선일 스님은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는 훈련을 하라”고 제언하며 “뭘 하려 하지 말고 호흡하며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 봐라. 화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과 수행에 대해 진각 스님은 “바른 생각과 정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면 수행공동체나 센터를 가서 선생님을 만들어야 한다. 가서 습을 만들고 태도를 만들어야 한다. 출가도 추천한다. 1년만이라도 해보라”며 “생각만으로 안 된다. 몸으로 움직이며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각 스님은 ‘음식명상’을 진행하며 “차를 마시는 행위 하나에도 수행의 모든 길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뽕잎차와 다식을 음미하며, 맛과 향, 온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리선명상’은 선일 스님의 지도로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명상을 진행했다. 스님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과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과 마주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자녀와 함께 참가한 이승훈(56, 서울 화곡동) 씨는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됐는데 도심 극장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멀리 나갈 수가 없어 사찰 템플스테이는 어려웠는데 도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반가웠다”고 밝혔다.

고요극장을 찾은 박사 칼럼니스트는 “종교가 불교가 아닌 친구와 동행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며 “템플스테이를 작정하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주변에서 이런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반과 함께 찾은 청년불자들에게도 ‘고요극장’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봉은사 청년회 회원인 정노겸(33, 수불) 씨는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도심을 벗어나야 하는데 스님들께서 직접 도심 속으로 오셔서 싱잉볼 체험도 하고 명상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셔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류경훈(33, 진각) 씨는 “템플스테이에 가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심 극장에서 만날 수 있어 반가웠고, 마음챙김도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K-명상, 정혜결사 정신으로 되돌아봐야”

김방룡 교수, 10월 17일 보조사상硏 학술대회서 밝혀

지눌의 ‘정혜결사’ 구현 고찰하며
조계종 ‘선명상’ 비판적 문제 제기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선명상’을 보조 국사 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 정신을 통해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10월 17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이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개최한 제32차 국내학술대회에서 ‘보조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발표하고 지눌 스님이 고려 불교를 혁신하기 위한 주창한 ‘정혜결사’ 의미를 짚고,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구현할 지를 살폈다.

김 교수는 정혜결사 이념의 핵심이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는 ‘수심불교(修心佛教)’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 △선(禪)과 교(教)를 아우르는 ‘선교융회’ △자신의 수행이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도록 돕는 ‘이타자비’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혜결사는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과 혜를 닦으면서도 노동과 운력으로 교단을 유지하며 정법불교로 돌아가려는 대중적 불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혜결사’의 현대적 계승과 관련해 김 교수는 최근 조계종이 추진 중인 ‘선명상’, ‘K-명상’ 대중화·세계화 사업을 예로 들며 비판적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김방룡 교수.

고찰했다.

김 교수는 “‘선명상’, ‘K-명상’이라는 말은 서구의 시선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용어”라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은 ‘땅에서 넘어졌는데 강물이나 허공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이 ‘K-명상’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한국선’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재가에 의해 주도되고 명상이 선수행을 대체해, 불교 종단이 명상이라는 상품을 파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눌의 정혜결사는 회광반조해 수심의 길을 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논평 질의응답에서도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 등 선의 정신이 ‘선명상’, ‘K-명상’에 뭉뚱그려 이야기되고 있다. 당장 ‘K-명상’ 등이 한국불교를 활성화거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작 외국인들이 한국의 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게 제가 가진 우려”라고 재차 밝혔다.

신중일 기자

흥선 스님, 국중박에 탁본 등 1143점 기증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등
금석문 가치 높은 탁본들 기증



조계종 탁본 명장 흥선 스님〈사진〉이 전국 각지를 돌며 채탁한 금석문 탁본(拓本)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체 기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흥선 스님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채탁한 금석문 탁본 등 총 558건 1143점의 소장품을 수증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이는 탁본 기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탁본은 비석이나 기물 등의 각명(刻銘)·문양 등을 먹을 이용해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전해졌고 금석학과 함께 성행했다.

금석학과 탁본은 함께 발전했다. 문자의 점획이나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은 탁본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은 명비(名碑)의 탁본을 떠서 첩(帖)으로 만들었고, ‘법첩(法帖)’이라 부르며 서예의 명품 내지 교본으로서 활용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과 김천 직지사 주지 등을 역임한 흥선 스님은 40여 년간 전국의 주요 금석문을 채탁해 온 자타공인 최고 한국 탁본 전문가로, 2024년에 조계종의 첫 탁본 분야 명장으로 지정됐다.

특히 2013년부터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전국 주요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 책임연구원을 맡아 전국의 고승 비문, 문묘 등 주요 금석문들을 탁본하고 있다.

이번에 수증한 탁본은 스님이 직접 채탁하거나 감독해 제작한 것으로, 삼국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 한국의 금석문을 폭넓게 망라하는 자료다. 또 불교사적 성격의 탑비·사적비부터 역사 기록물인 승전비·묘도문자에 이르기까지 주제면에서 다양하고 전국 각지에서 채탁돼 지역적 분포도 넓다.

이번에 수증한 탁본 중에는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를 비롯해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여수 통제이공수군대첩비 등 보물로 지정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금석문의 탁본들이 포함됐다. 김정희, 한호, 이삼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의 글자를 새긴 예, 미불과 구양순 등 중국 서예가의 글자를 집자해 새긴 예도 있어 신뢰도 높은 서예사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기증을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학술연구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금석문 본래의 조형미와 탁본 예술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됐다”면서 “수증한 탁본을 역사학, 서예사, 미술사 등 학술 연구뿐 아니라 전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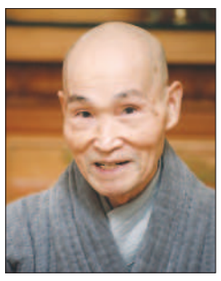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청화 스님 ‘염불선’ 수행법·활용 방안 논한다

청화사상연구회 제13차 세미나
11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염불선의 이론과 수행체계를 세우고 대중화에 앞장섰던 선지식 무주당 청화(1923~2003·사진) 대종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11월 2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염불선의 실천수행과 교화’를 주제로 제1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벽산 무주회(문장 일묵 용타 스님)와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염불선의 수행법에 대한 연구와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건립된 청화기념관과 염불선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담은 논문 두 편이 발표된다.

전 한국정토학회장 법상 스님은 ‘벽산당 금타 대존사의 염불선과 수행법’을 통해 금타 대존사(1898~1948)의 수행은 현교(顯教)와 밀교(密教)가 융합된 형태를 보였음을 살피고 현밀융합(顯密融合)의 불타관과 염불선 수행법에 대해 조명한다. 이를 통해 〈금강심론〉 등의 전거를 검토해 현밀융합적 염불수행법이 정통불법의 요체에 부합함을 밝힌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염불선 교화를 위한 청화기념관 활용방안’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요 무형유산인 염불선의 가치를 조명·확산하고 청화기념관과 연계해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염불선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한 시간의 축으로 ‘만일염불선결사’를, 공간의 축으로 (가칭)‘염불선 순례길’의 개발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광륜사 교무국장 보원 스님,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무안 혜운사 주지 정헌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 패널이 참여해 진행된다.

광륜사 주지 명원 스님은 “학술세미나를 준비해 준 청화사상연구회와 전문 학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청화 스님이 전하신 염불선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논의·모색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2~10/2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6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법륜	정토
2	화엄경 약찬게 풀이	김현준	효림	7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3	선정겸수	월암	담앤북스	8	붓다의 철학	이중표	불광출판사
4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9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민족사
5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틱낫한	RHK(알에이치코리아)	10	동자승 컬러링 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론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2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7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3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월호스님의 게송명상	월호	맑은소리맑은나라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원각경 강의	남회근	마하연

MZ세대 위한 돈관 스님의 '불교 길라잡이'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 스님 지음
동국 / 1만8000원

동국대 이사장 '청년 전법' 매진
"불교 안내하는 징검다리 절실"
25년만 개정판…문답으로 풀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대학생 전법의 새 장을 열고 있는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이 MZ세대를 위한 불교 안내서 〈불교를 알고 싶어요〉를 출간했다. 25년 전 불자들의 고민에 답하기 위해 썼던 책의 개정판으로, 오늘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했다.

돈관 스님이 불교 입문서를 새롭게 선보이게 된 건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절실함 때문이다. 스님은 취임 후 각 단과대학별로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3500여 명의 학생이 수계하는 '영캠프'를 개최하는 등 동국대를 대학생 전법의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더불어 '힙(Hip) 불교' 열풍으로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호감'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불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스님은 청년 불자들이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다.

책은 △경전 이야기 △불·보살 이야기 △교리 이야기 △상징 이야기 △기도·수행 이야기 △신행 이야기의 6부로 구성됐다. 불교 입문서지만 어려운 교리 대신 불교의 역사와 문화, 생활 전반을 문답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부처님은 왜 그렇게 많은지, 경전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전각마다 왜 이름이 다른지 등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궁금하지만 누구에게 묻기 어려웠던 질문을 선별해 친절히 답한다.

특히 5부 '기도·수행 이야기'에서는 독경·간경·염불·주력·참선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 준다. 스님은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원을 세우고, 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일념을 갖는 것"이라며 "일념 기도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의 근본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눈을 열리게 해 부처님을 친견하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온갖 공덕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청년 불자들을 위한 입문서 〈불교를 알고 싶어요〉를 25년만에 재출간했다.

돈관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그간 교리와 수행을 보다 알기 쉽게 전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들도 도입되었지만, 시대가 변해도 불교의 본질적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개정판에서는 교리 해설에 그치지 않고 불교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관계와 호흡 속에서 깨어 있는 지혜와 자비로 드러난다"며 "이 책이 처음 불교를 만나는 분들에게는 친절한 첫걸음이 되고, 오랫동안 신행을 이어 온 불자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1978년 일타 대종사를 은사로 수계한 후 조계종 제14·17대 중앙종회의원, 은해사 주지,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진리와 지혜의 나눔〉 등이 있다.

'찐불자' 청년들의 좌충우돌 유튜브 도전기



저절로 가는 건 시간밖에 없어
박유진 · 전혜정 · 홍사훈 지음
퍼플 / 2만2900원



유튜브 '절 턱 낮추기 프로젝트-저절로 간다'의 조계사 편.

청년 불자들 '저절로 간다' 기획
대본부터 촬영·편집까지 직접

지난 2000년 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에 유쾌한 영상 한 편이 공개됐다. 청년 불자 세 명이 직접 사찰을 찾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절 턱 낮추기 프로젝트-저절로 간다'다.

'절 턱 낮추기 프로젝트'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프로그램은 "불교 콘텐츠는 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직접 '절 턱'을 낮추기로 합심한 이들은 불교를 더 가볍고, 더 현실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 앞에 섰다.

세 명 모두 대불련 회장, 집행위원 등의 소임을 맡아 불교에 대한 애정은 넘쳤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는 그야말로 '생초보'였다.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문을 쓰고 자료를 조사하고 카메라를 들고 절 마당을 뛰어다니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까지. 무엇 하나 '저절로' 되는 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저절로 가는 건 시간밖에 없어〉는 이들이 첫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편을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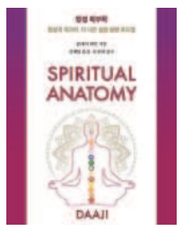
"돈도 안 되는 유튜브를 왜 하냐"는 질문에 이들은 답한다. 처음에는 그저 재밌어서 시작한 이 일이, 몸과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방송 출연과 직업으로도 이어지는 귀한 인연이 됐다고.

이들의 고군분투는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에게 귀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주문 시 인쇄, 제본되는 POD도서로 출간돼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요가 철학의 지혜와 실천법 소개



영성 해부학
캄레시 파텔 지음
김재영 옮김
문진희 감수
마이트리
2만5000원

20세기 초 인도에서 시작된 하트풀니스(Heartfulness) 명상의 계보를 잇는 네 번째 지도자, 캄레시 파텔이 하트풀니스 명상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영성 해부학'은 물리적인 인체 해부학과 달리, 인간 내면의 의식 구조와 미묘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다.

'읽고 즐기기'에서는 영성 해부학의 중요성과 영혼의 기원을 탐구하고, '하고 느끼기'에서는 수행법의 핵심 개념과 차크라의 특징을 설명한다. '명상하고 초월하기'에서는 가슴·마음·중심 영역으로 나눠 영적 여정에서 만나는 경험과 상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각 차크라별 지도를 제시한다.

과학자가 읽어낸 〈요가수트라〉



타임니 요가수트라 강의
I. K. 타임니 지음
정솔빛 옮김 / 이숙인 감수
나무를심는사람들
2만8000원

요가의 고전인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는 방대한 요가의 정신을 196개의 짧은 경구에 담고 있어 그간 다양한 해설·주석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I. K. 타임니(1898~1978)가 〈요가수트라〉를 현대적 언어로 풀이한 책이다. 그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개념, 명확한 개념을 제시해 요가의 근본 가르침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고 밝혔다.

저자는 인도 알라하바드대학에서 화학과 교수로 일하며 평생 요가를 연구하고 수련하고 가르쳤다. 책은 △사마디 파다(삼매의 길) △삿다나 파다(수련의 길) △비부티 파다(초능력의 길) △카야발야 파다(해방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으로 그려낸 우리 역사



당신 곁의 한국 정원
신지선 지음
수오서재
1만7000원

'정원(庭園)'이라고 하면 형형색색의 꽃이나 잘 다듬어진 나무가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원은 조금 낯설다. 담장과 입구가 없거나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곳도 있다.

영주 부석사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막쌓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부석사 석축을 소개하며 "크고 육중한 돌들과 그 사이를 아름다운 선으로 메꾼 작은 돌의 조화는 마치 한 편의 추상미술을 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고 말한다. 이어 담양 소쇄원과 강진 다산초당, 논산 명재고택, 경주 독락당, 함안 무기연당 등에서 선조들이 새긴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읽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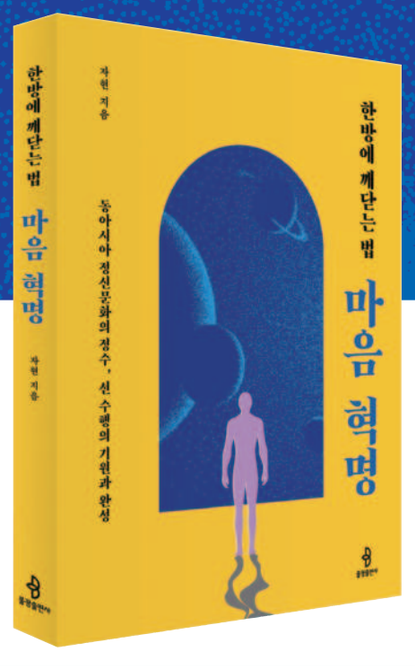
쉬어도 지치고, 달려도 불안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관점 전환의 답을 건네는 '동아시아 정신문화'!

그 흐름의 정점에 '선禪'이 있다!



자현 스님의 여덟 번째 박사학위 연구를 바탕으로 조명한
"긍정의 철학, 부정을 넘어선 지혜"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서도 공허와 불안, 끝없는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단순한 힐링이나 자기계발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은 '현실 긍정, 욕망 승화, 인식 환기, 걸림 없는 자유'라는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핵심 사유에 있다.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계보와 그 속에서 꽃핀 선 수행 확립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마음 혁명'의 길을 열어준다.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정수, 선 수행의 기원과 완성
자현 지음
336쪽 | 올컬러 | 3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이날 환자 3명이 치료비 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배아현 가수의 무대.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공연 모습.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8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6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500여 관람객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자비나눔 시간을 가졌다.

가을 정취 가득 불암사에 울린 생명나눔 선율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9.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가을 국화 향기로 가득 찬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공연을 즐기는 500여 관람객들은 풍성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자비나눔으로 마음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0월 18일 '제16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대중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익선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의 밝고 유쾌한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 1부는 일면 장학금 전달식, 법인 발전기금 전달식, 환자 치료비 전달식, 생명나눔 장학금 전달, 2025년 우수직원 표창, 홍보대사 위촉식, 인사말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불암사 합창단의 신명 나는 무대에 이어 다양한 전달식이 이어졌다.

첫 순서는 일면 장학금 전달식.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정진하는 학인 스님들과 불자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장학회 이름은 조계종 호계원장과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두산 일면 대종사의 법명에서 따왔다. 매년 약 30여 명의 학인 스님과 불자 학생들에게 총 3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총 20명으로, 장학금 총액은 1700만원이다. 일면장학회 이사장 법일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 혜월 스님과 유승원 남양주 광동고 학생 등 장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학인 스님에게는 각 100만원, 학생들에게는 각 50만원이 수여됐다. 이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는 법인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부산 소림사 주지 종인 스님이 1000만원을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상좌 우석 스님이 참석했다.

산사음악회의 또 하나의 뜻깊은 순서, 환자 치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연간 6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억원의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 3명에게 총 500만원이 지원됐다. 전달식에는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대신해 환자의 부모가 함께했다. 일면 스님은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환우 가족들에게 저서 〈행복한 빈손〉과 단주를 선물하기도 했다.



일면장학회는 장학생 20명에게 1700만원을 전달했다.

생명나눔, 10월 18일 제16회 음악회
500여 명 동참 가을정취 · 나눔 만끽
배아현 · 비니쌤 · 최우진 가수 등 출연
일면 장학금 · 환자 치료비도 전달
"우리 마음 하나로 잇는 자리" 염원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된 문서연 프로골퍼.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 온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회장 전용현)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400부를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장학금 400만원을 수여하며 참사랑 봉사단을 응원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문서연 프로골퍼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는 장기기증·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캠페인, 강연, 언론활동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서연 프로골퍼는 일면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스포츠를 통해 생명나눔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격적인 산사음악회로 진행된 2부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포문을 열었다. 개그맨 엄영수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의 무대에 이어 배아현, 최우진, 비니쌤, 주권기 등 초대 가수들이 출연, 깊어지는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보였다.

일면 스님은 "이번 음악회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울림과 정서를 나누는 장이며 생명나눔과 자비 실천을 행하는 자리"라면서 "무대 뒤의 정성, 무대 위에서 빛나는 예술가들의 혼과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음악회의 진면목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악회가 자연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잇길 바란다"면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공연장 앞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이 진행됐다. 또 의류 등 생필품을 비롯해 국수, 파전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바자회가 열려 환자치료비 모연도 이뤄졌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이다. 1994년 설립 이래 장기기증·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 돕기, 해외 의약품 및 문화교류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
2025.11.22 토요일
오후 4시 - 6시
중랑구청 대강당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전석 2만원
티켓 문의 02.734.8051
※ 본 공연의 티켓 판매금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농협 053-17-001346
주최 · 주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MaHa


사찰음식 대중화 중심으로 우뚝 서다

개관 10돌 맞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2015년 12월 15일 공식 개관
전시 · 체험 · 교육 공간 활용
10년간 15만 2000여 명 찾아
직접 사찰음식 체험하고 맛봐
참여자 98% “만족해요” 호평
전문가 발심 ‘징검다리’ 역할
11월, 10주년 기념행사도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월에 열린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와 함께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음식체험 프로그램의 참가자와 체험관 지도법사 하경 스님의 기념촬영.

“사찰음식은 한국불교의 수행정신과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잘 간직된 음식입니다. 한국사찰음식체험관 개관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현대인에게 맑고 향기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개원식 치사 中)

교육과 체험을 통한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개관한 서울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체험관은 지난 10년 동안 사찰음식의 정신과 철학, 가치, 요리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사찰음식 대중화의 문을 열다

체험관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한국사찰음식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식 개관했다. 370㎡(약 112평) 규모인 체험관에서는 전시, 체험, 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되고 있다.

전시 공간에는 사찰음식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오관게송 현판부터 전통사찰 공양간과 조왕신앙, 김장 모습, 발우공양 시연을 담아낸 전시품들이 선보인다.

교육공간에서는 사찰음식 조리 강좌가 이뤄지며 차를 마시며 스님과 차담을 나눌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다.

체험관은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음식 강좌를 비롯해 주한 외교대사와 외국인 등의 체험행사, 사찰음식 경연대회,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도시락 지원, 발우공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체험관을 방문한 인원은 15만 2751명(2024년 기준)으로 이 중 내국인은 12만 1390명, 외국인은 3만 1361명이었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인원은 6만 6780명이며, 이 중 내국인은 5만 7053명, 외국인은 972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여파로 조금 주춤했던 시기도 있지만 현재는 빠르게 회복됐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전경.


지난 4월 진행된 특강에서 선재 스님이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다.

시대 따라 변화하는 프로그램

10년 동안 적문·선재·정관·대안 스님 등 40여 명의 강사 스님들이 사찰음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하며 대중들에게 사찰음식의 진수를 전했다.

초기 교육프로그램들이 차명상, 사찰음식 고추장 만들기 등이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사찰음식 조리법을 전하거나 집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반찬비법 강좌 등으로 변화·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명상’과 결합한 ‘사찰음식 명상’ 일일강좌도 선보이고 있다.

방문객과 체험 참가자들도 변화했다. 사찰음식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에는 불자들의 참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장인, 주부와 학교, 단체,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도 참여 계층이 확대됐다.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활용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민희 체험관 운영팀장은 “데일리 클래스 중 집에서 해먹기 어렵거나 관심이 있는 사찰음식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저녁식사나 다음날 아침으로 드시는 직장인 수강생들이 많다”면서 “주말에는 체험관에서 수업에 참여해 점심을 해결하고 안국동 인근 사찰과 고궁, 미술관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 수강생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체험관 전시공간에 걸린 ‘오관게’. ‘오관게’는 사찰음식 정신과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참가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 팀장은 “토요일 외국인 대상으로 한 클래스는 고정적 운영 중”이라며 “최근에는 에어비엔비에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 중인데 이를 보고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관련 후기들도 호평 일색”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시대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화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기에 참가자들의 체험관 만족도는 높다. 2024년에 조사된 체험관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들의 98.4%가 6.66점(7점 평균)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체험관 초심자가 전문가로

체험관은 사찰음식 대중화의 중심이자 전문가 양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체험관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해 보고 발심해 사찰전문교육기관 ‘향적세계’에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수료 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인 후지모토 미호(44·서울 종로구) 씨는 남편의 권유로 사찰음식을 체험관에서 접한 뒤 전문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후지모토 씨는 “3년 전 남편이 결혼선물로 피부과 시술과 요리강습 1년권 중 하나를 제안했는데 가족에게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요리강습을 선택했다”며 “매운 것을 못 먹는 저를 위해 남편은 사찰음식 강좌를 권했고, 처음 접한 뒤 매료돼 전문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음식을 배우면서 유화·동희·경운·하경 스님 등 존경하는 스님과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됐으며 음식 재료의 소중함과 건강한 맛을 알게 됐다”면서 “가족에게도 좋은 음식을 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독실한 불자인 황수경(52·서울 성동구) 씨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체험관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사찰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전문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면서 “체험관에서 수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명상을 하는 느낌이었다. 당시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수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사찰음식을 배우며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찰음식을 통한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라는 황 씨는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찰을 책임지고 있는데 사중 행사마다 스님과 대중에게 사찰음식을 공양하고 있다”면서 “지난 사찰음식 대축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첫 인연을 맺은 체험관에서 수업 보조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찰음식은 제 일상의 새로운 활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찰음식 정신 · 철학을 전하다

개관 10돌을 맞는 체험관은 단순히 사찰음식의 레시피와 조리법을 교육하는 공간을 넘어 사찰음식의 정신과 철학을 전하는 도량으로서의 면모도 굳혀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일학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생명존중 사상을 담은 ‘수행식’이다. 최근 채식, 비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찰음식의 정신과 철학을 널리 알릴 기회”라며 “지속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대안이자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행임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험관은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대중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도 계획 중이다. 11월 1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겨울맞이 사찰 김치 특별강좌가 진행된다. 수업 인원은 24명(4인 1조)으로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11월 27일에는 종로구청,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종로구 관내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반찬을 전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Interview

“사찰음식, 수행이자 삶의 태도…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일학 스님



Q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 10년을 맞았다. 체험관 10돌의 의의와 성과는?

A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한국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국인·청소년·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도시락 지원 △사찰음식 경연대회 △발우공양 체험 △김장나눔 △어린이 미각교실 △다도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한국 불교문화의 정신과 지혜를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확장해 온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관은 사찰음식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식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Q 최근 건강과 기후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비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체험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A 사찰음식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식문화가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에 생명 존중과 자연에 대한 공감이 담긴 ‘수행식’입니다. 채식과 비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은 이 수행식이 지닌 가치 즉 ‘먹는 행위 또한 마음을 닦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삶의 방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체험관은 기업, 학교, 지역 커뮤니티 등과 연계해 건강·환경·윤리적 소비 측면에서 사찰음식이 실천 가능한 식문화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건과 채식이 지향하는 바가 단순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먹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임을 전하며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대안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사찰음식 대중화에서 중요한 지점은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다. ‘삼소식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활성화 방안은?

A 사찰음식은 조리법보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삼소식’은 ‘즐겁게 먹기[笑食]’ ‘적게 먹기[小食]’ ‘채소 먹기[蔬食]’를 뜻합니다. ‘삼소식 캠페인’은 이러한 식생활을 현대사회에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철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콘텐츠와 교재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찰음식 식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군종교구와 연계해 국군장병을 위한 사찰음식 오찬 행사를 진행, 장병들의 건강한 병영 생활을 지원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찰음식의 철학이 사회 각계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찰음식이 단순한 전통의 전수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10돌을 맞은 체험관의 향후 운영 방안은?

A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지난 10년간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서 사찰음식의 가치와 철학을 널리 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확산의 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찰음식이 전통문화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지혜로 자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사업단은 영국·프랑스 한국문화원, 르 꼬르동 블루 등 해외 기관과 협력해 사찰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왔으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비롯해 사찰음식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하며, 체험관이 한국 사찰음식의 철학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세계 속에 널리 전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0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한줄 요약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잘 살펴서 탐진치 삼독심의 마음을 늘 경계하여야 하니, 항상 두 가지 견해를 갖지 않고 여여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분별된 마음, 고락 가져온다

〈苦樂〉

> 즐거운 쾌락 뒤엔 나쁜 결과 뒤따라
> 모든 건 業,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 '좋고 싫음'이란 분별심 내려놓아야
> 비로소 '고락'이란 인과 사슬 끊어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달빛 머금은 아슬한 산 차고도 고요한데
마음 숲에 바람 부니 소리 내어 일렁이네.
속세의 저잣거리 종일토록 시끄러운데
바람 멈춘 마음 숲은 달빛 고요 품었구나.

선종 제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信心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二見不住 愼莫追尋)
삼가 쫓아가서 찾지 말며(纔有是非 紛然失心)
조금이라도 옳고 그름이 있으면(二由一有 一亦莫守)
본마음을 잃고 어지러워진다.(一心不生 萬法無咎)

생각과 감정의 마음은 두 가지로 이뤄졌습니다. 마음에 하나의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다른 반대의 생각과 감정 또한 똑같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좋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한 번은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 두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고 움직여도 나타나며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에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싫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싫은 사람도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살인마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라면 용서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짓을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엄청난 고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나서 죽기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재수가 없다거나 억울해 하거나 조상을 탓하기도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같은 일에 대해 업보(業報) 또는 과보(果報)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리 큰 잘못을 저지른 기억이 없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뿐입니다. 우선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두 가지의 마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즉, 고통스러운 마음의 무게만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즐긴 만큼의 쾌락에 의한 과보(果報)로 고통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이들은 본인의 노력의 결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계산법은 눈곱만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속세를 떠난 출가 수행자들은 일체의 세속적인 즐거움에 해당하는 것들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버리고 또 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응하는 고통의 과보(果報)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분별이 없으면 달빛도 산도 모두 고요하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니 산속에 있어도 마음이 세속처럼 시끄러워집니다.

두 가지의 분별된 마음에 따라 고락(苦樂, 괴로움과 즐거움)의 인과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니 이를 그치고 멈추고자 한다면 두 가지 마음을 없애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잘 살펴서 탐진치(貪嗔痴-욕심, 성냄, 분별) 삼독심(三毒心)의 마음을 늘 경계하여야 하니, 항상 두 가지 견해를 갖지 않고 여여(如如)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도와 보시, 참선 정진은 두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최고의 수단 방법입니다.

[오늘의 명상]
뜨거운 여름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아도
가을은 곧 폭염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느니
지금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월은 곧 편안한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리라.

가파르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니 매우 위험하기는 하나 극한 고통에 따른 극한 재미는 있을 것이고 평평한 곳에는 위험이 없고 편안하기는 하나 재미는 없을 겁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쾌락과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힘듦을 감수해야 하고, 편안하고자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험을 피하고자 하면 짜릿한 재미는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여름의 뜨거움이 있을지라도 가을이 곧 온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 여유를 가지고 참을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두운 밤을 굳이 밝히려 밤새 불을 지피는 어리석음을 택합니다.

스스로 더욱 힘들어하는 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지 못하고 좋은 시절이 왔을 때도 더 좋은 것을 찾으려 애쓰으로 힘들어하니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좀처럼 마음을 쉬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로써 극복하라 하시니 이를 사성제(四聖諦) 즉, 네 가지 진리라 하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나아가 더 좋은 것을 구하려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 같은 생각과 감정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 곧 괴로움을 여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바른 행동을 '팔정도(八正道)'라 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여법히 행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여의고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난 이를 성문승(聲聞乘)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은 인과(因果)가 계속 윤회하여 연기(緣起)한다는 것을 여실히 관(觀)하고 잘 알아서, 그 어떤 현상이나 인연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성인을 연각승(緣覺乘)이라 합니다.

삶이란 고락이 공존하며 서로 교차하는 모습 외에 더도 덜도 아니니, 이 고리를 끊고자 한다면 성문승과 연각승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살면서 경험도 하고 별의별 꼴 온갖 일에도 부딪혀 봤을 겁니다. 이 즈음하여 지루하게 반복되는 어지러운 삶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전혀 새로운 세계의 맛도 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생각만 돌리면 우주 밖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⑯ 보해(寶海, 普海) 스님



▶한줄 요약
보해 스님은 17세기 후반 남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스승 희장 스님의 불상 양식을 계승해 18세기 전반 불교조각 양식으로 이어 준 대표적 조각승이다.

17세기 중·후반 영호남 불교조각의 거장

〈巨匠〉



창원 성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79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양산 통도사 목조제석천왕좌상(1679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고흥 송광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80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보해 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희장(熙藏) 스님의 제자로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17세기 후반 불교조각의 주요 양식 형성에 기여했다. 그는 스승인 희장 스님을 보좌하면서 사찰의 중심 전각과 부속 전각에 다양한 불상을 조성했으며 이러한 조각 활동을 통해 희장 스님이 배출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보해 스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46년 9월 구례 반야봉 수도암에서 수화승 승일(勝日) 스님과 부화승 희장 스님 등과 함께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때 조성된 불상 가운데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은 현재 천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당시 보해 스님은 조각승 7명 중 마지막에 기록돼 있어 집단 내에서 가장 연배가 낮은 조각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보해 스님은 1649년 9월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구미 원각사 봉안, 도 유형문화유산) 조성에 희장·천색(天賾)·경옥(敬玉) 스님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이어 희장 스님과 1650년 남원 만행산 금강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진안 금당사 봉안, 도 유형문화유산), 1653년 고흥 불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약사·아미타여래는 현재 고흥 능가사 봉안), 1654년 경산 반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현재 목조미륵보살좌상만 청도 대운암 봉안, 도 문화유산자료) 가운데 본존인 석가여래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해 스님이 조각승 그룹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또한 보해 스님은 희장 스님과 1658년 부산 진구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시 유형문화유산), 1661년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조성 시에는 부화승으로 참여했다. 1664년 6월 수화승 도우 스님과 함께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나한상을 제작하고, 희장 스님과 1665년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1666년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문화유산자료),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도 유형문화유산), 1667년 영광 연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조성했다. 이후 1675년에는 현종(顯宗) 빈전(殯殿) 조성소(造成所)에 화승(畵僧)으로 참여했다.

1679년 보해 스님은 수화승으로서 창원 성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조성했고, 1680년 고흥 송광암 목조여래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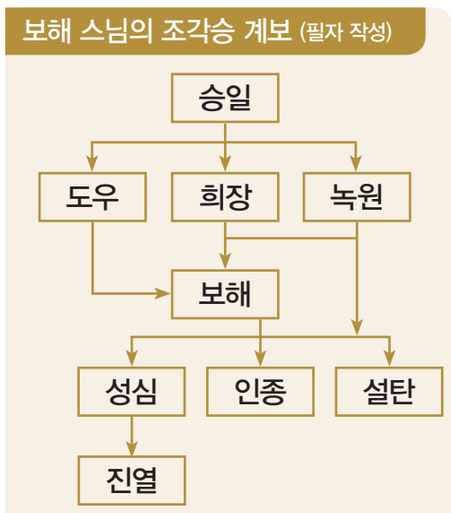
희장 스님 계보 잇고 30여 년 활발 활동
1670년대 수화승으로 불상 제작 주도
창원 성흥사·고흥 송광암 등에 불상 조성

문헌 기록과 현존 유물에 따르면, 보해 스님은 1620년대에 태어나 1630년대에 불상 제작 수련기를 거친 뒤, 1640년대에는 승일 스님이나 희장 스님이 주도한 불상 조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1650년대에는 희장 스님의 주요 불상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고, 1660년대에는 부화승으로서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1670년대에는 수화승으로 독립적인 불상 조성을 활발히 이어 갔다.

보해 스님의 활동 지역은 주로 호남과 영남 지역 주요 사찰로, 중심 전각인 극락전, 부속 전각인 영산전에 다양한 불상을 제작했다. 보해 스님이 수화승으로서 제작한 불상은 현재 경남 창원 성흥사, 고흥 송광암 등 두 사찰에서 확인되며, 이외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목조제석천왕좌상은 발원문을 통해 1679년 창원 성흥사 영산전 불상과 같은 시기에 같은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보해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승일(勝一·勝日, 이하 활동 시기 1622~1670)→보해(寶海·普海, 1646~1680)→인종(印宗, 1655~1680)·설탄(雪坦, 1673~1680)·성심(性諶·性沈, 1670~1695)→진열(震悅·進悅, 1688~1719)로 이어진다.

보해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보해 스님과 함께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성심 스님이 특히 주목된다. 성심 스님은 1670년, 녹원 스님이 주도한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조성 시 명단 맨 마지막에 기록돼, 이 시기부터 조각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73년 수화승 자수 스님과 녹원 스님이 만든 합천 해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그리고 1679년 보해 스님이 만든 창원 성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16나한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1695년 수화승으로 전주 백련사 목조나한상(현재 전주 서고사 봉안)을 조성했다. 이로 보아, 성심 스님은 초기에는 녹원 스님을 따르다 이후 보해 스님과 함께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보해 스님은 1680년 고흥 송광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며 자신의 마지막 불상 제작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재 송광암 극락전에는 아미타여래와 대세지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로 구성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돼 있는데 이들 세 불상은 조성 양식의 차이를 보이며 내부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역시 서로 다른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기록하고 있다. 보해 스님은 이 가운데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1680년 5월 설탄 스님과 함께 제작했음이 발원문을 통해 확인된다.

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66.5㎝의 중소형 불상으로, 인체 비례에 가까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소 띤 얼굴은 온화하고 인자한 인상을 주며, 머리에는 동글동글한 나발(螺髮)과 명확하지 않은 육계(肉髻), 이마 위의 작은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돼 있다.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고, 그 위에 두꺼운 대의를 걸친 변형편단우견식이다. 오른쪽 어깨에는 부드럽게 반달형의 대의 자락이 흘러내리며, 나머지 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복부에는 부견의 안쪽으로 대의 자락이 접힌 형태가 표현됐으며 하반신을 덮은 복부 중앙에는 상단이 좁고 하단이 넓은 비파채 형태의 대의 자락이 묘사됐다. 이러한 표현은 보해의 스승인 희장 스님이 만든 불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표현됐다.

보해 스님은 수화승으로서 현재까지 두 점의 불상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이목구비와 안정적인 신체 비례, 그리고 하반신 대의 자락의 양식적 표현을 통해 스승 희장 스님의 조형 감각을 충실히 계승했다. 그는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제자로 추정되는 성심 스님에게 전수했으며 이는 다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진열 스님에게까지 이어져 불교조각사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52호 | 15 | 전면광고

세상의 모든 향기 중에 가장 훌륭한 향기가
세 가지 있으니, 첫째가 지계의 향기요,
둘째가 배움의 향기요, 셋째가 보시의 향기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약수암
- 대지 : 1,000평 (주차장, 호남고속도로 3k, 도로포장됨)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임야 : 6정보(18,000평). (1500평 전답으로 사용, 소나무 20년생 40,000주, 교육연수원·수목장·납골당 개발가능, 마을인접지역은 전원주택 개발가능)
- 가액 : 5억원

010-3758-8039 / 010-5211-9958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천만원/월세 60만원(절충가능)
- 집기 일체 3천만원(절충가능)
- 4층 전세 사용 함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상담 후 가액 절충

010-3868-8219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작은 보시금으로 매입 가능합니다!)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서울에서 약106㎞ 1시간 30분, 동홍천 IC에서 17㎞ 25분거리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 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토굴이나 개인 선방용 추천
-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 조정 가능)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 4개),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년 4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333-8905
010-5022-218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산하
- 부지 1330평
- 대웅전(60평), 요사채(40평), 황토방(10평)
- 상수도, 지하수, 전기(태양광 포함 15k)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8억 8천만원

010-6372-8968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 보호 및 색채 보존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안전기준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제 FB25-07-0032호

國寶 明油·蘇子油

명유·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보존제

발수코팅·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사용처 : 문화재(단청마감재), 색채 보존제, 사찰, 한옥, 공예품, 민속품, 목재 보호 및 코팅이 필요한 모든곳, 경첩, 놋쇠 등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 010-3747-2111
TEL | 031-451-6232 FAX | 031-451-6238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1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52호 | 16 | 전면광고

무거운 돌을 연못에 던져 놓고,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축원을 한들, 어찌 무거운 돌이
물 위에 떠 오를 수 있으랴.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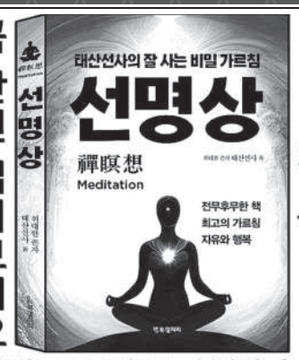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4804-2309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희귀병 상담

-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 무엇인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시는 분
- 매일같이 몸이 아프신 분
-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

합천군 가야면 죽전길 132-2 법정사 해산스님

010-7321-0404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전국 어디든 사찰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해드립니다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⑳ 만해동산

침묵이라는 언어

지난 연재에서 산책한 동국대학교 팔정도는 사실상 학교의 마루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산자락을 오른다는 의미에 침잠해 왔다면 이제는 내려가는 과정을 톺아봐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아직 마루에서 둘러볼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바로 만해동산이다. 팔정도에서 본관을 끼고 구석으로 들어가면,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스님을 기리는 '만해한용운시비(卍海韓龍雲詩碑)'와 함께 대리석으로 장엄된 작은 정원 공간이 나타난다. 이곳이 만해동산이다.

만해동산은 원래 '만해한용운시비'를 중심으로 나무 데크로 장식돼 있었고, 또 주목나무가 에워싼 다소 갑갑한 공간이었다. 지금은 이 나무 데크를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정돈했으며 나무도 다시 식재해 서울 북쪽의 전경을 시원하게 내려볼 수 있게 했다. 멀리로는 인왕산과 북한산의 전경이, 가까이로는 종로 도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호연지기가 절로 드는 곳이라고나 할까.

만해동산 중심에 자리한 '만해한용운시비'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이 새겨져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1기 졸업생으로 학교 곳곳에는 만해관, 만해광장, 그리고 이곳 만해동산까지 만해의 이름을 딴 장소가 많다. 오늘 산책에서는 이 '님의 침묵', 특히 '침묵'에 대해서 사색을 더해 보고자 한다.

침묵, 조용함은 불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 받는 행위이다. 침묵은 철학 일반에서는 관조(觀照)라고 불리며, 사실상 사색의 시발점으로 이해되므로 그 중요성이 불교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뉘앙스상 불교의 침묵이 그 안에서 언어화·개념화 작업을 정지하는 작용, 즉 선(禪)과 연관된다면, 일반 철학에서 관조는 내면 안의 뜨거운 사색, 즉 음성화되기 이전 혹은 내면적 음성언어라는 파롤(Parole)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으로, 후자를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이라고 부르겠다.

문제는 '님의 침묵'의 침묵이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인지,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인지에 달려 있겠다. 하지만 시라는 특성상 연구논문처럼 개념어들의 명확한 정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시에서도 침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나타나며 떠나 버린 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진 상황, 즉 님의 부재를 묘사할 뿐이지 침묵 자체가 님의 의도와 어떻게 엮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수능 언어영역 지문 풀이와 같은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서 불교교리적 이해해서 다시 침묵의 의미를 살펴보자.



동국대 만해동산과 이곳 중심에 자리한 만해한용운시비.

언어 초월 침묵은 본래적 깨달음
가다듬는 침묵은 없던 지혜 완성
불교서는 불방일 위한 침묵 중요

다소 엉뚱한 전회(轉回) 같지만, 깨달음은 있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차이에 따라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과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의 가치가 달라진다. 깨달음이 본래 그것에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면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만이 깨달음과 어울리는 침묵이다. 이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이라고 표현되는 본래적 깨달음과 그것에 이르는 사고방식이다. 다른 작용과 상호 관계를 갖지 않고 그저 내면으로 절대적으로 침잠해 내려가면 그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존재를 낳게 하는 기층(基層)으로서 깨달음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뿌리로서 깨달음, 본각을 알게 된다면 산천초목이 다 깨달아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A 유형의 깨달음이라 하겠다.

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 즉 삼혜(三慧)의 작용 끝에 다시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을 닦아 이루어진 특정한 상태, 즉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 낸 것이라 한다면, 이에는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이 가치가 있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붓다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생각해 그 말씀이 옳다고 결정하게 되면 이에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혜다. 그리고 실제 수행은 붓다께서 말씀하신 생활을 지키고 여러 사색을 명확히 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혜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삼학이다. 이를 B 유형의 깨달음이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대승 혹은 아시아 불교의 주류는 A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승 혹은 인도불교의 주류는 B에 있었다. A의 유형에서 자주 관찰되는 파도의 비유에서는 바다의 심층은 고요해 움직이지 않지만, 그 표면은 바람에 의해 파도치며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한다. 이때 심층은 파도가 이는 표면을 낳지만, 그 자체는 고요한 본각의 자리이다. 파도가 이는 표면은 시끄럽지만, 사실 고요한 심층에서 나왔기에 언제든 심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이므로 시각이라고 한다. 이를 공간적 연기의 이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원인(본각)과 결과(시각)는 상하(上下)로서 공간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한다.

반면 B에서는 명확히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지금 여기의 내가 붓다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며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끝에 붓다가 약속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에서 사로, 사에서 혜로, 계에서 정으로, 정에서 혜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 그 자체로 이해돼 간다. 나는 이를 전후(前後)라는 시간적 이미지로 이해한다. 수행은 끝없는 미래로의 여정으로 이미 버린 고향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나의 기층이나 기저는 궁금하지 않다. 그저 붓다의 말씀을 들은 이상 나의 기층, 기저를 버리고 붓다의 말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시간은 변화이고 변화는 생멸이며 생멸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언어를 쓴다. A에서 시간은 무화되고 공간만이 남는다. 시간의 무화는 곧 언어의 절멸이고 이는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반면 B에서 시간은 소중하며 그 순간순간을 방일하지 않게, 즉 불방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생멸하는 과정 속의 불방일을 위해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님의 침묵'에는 희망, 만남 등 명확히 미래를 지칭하는 시간의 흐름이 읽혀진다. 나는 불교적인 의미에서 '님의 침묵'의 침묵이 A가 아니라 B에 기초하고 있음을, 즉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훗날 다시 만날 님에게 하고픈 말을 생각하고 있었으리라.

〈동국대 박사〉

삼승 정법 수호하면 야차 등도 옹호한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㊵ 착한 사람의 복덕(진선인 복덕)

이번 호에서는 〈지장십륜경〉 제3권에서부터 무의행품(無依行品, 의지함이 없는 행,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제4장 '유의행품'(有依行品, 의지할 곳이 있는 행)의 1, 2, 3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때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어, 만일 착한 재관, 장자, 사문, 바라문 등이면, 나와 남과 후세(後世)와 불법도 잘 수호할 것이며, 출가한 이가 법의 그릇이거나 아니거나 계율이 없더라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면 그를 공경 공양하나이다. … 십종 악륜에 있어서 자신도 물들지 않거니와, 항상 남을 권하여 열 가지 악륜을 떠나게 합니다.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바른 법을 배우고, 삼보의 씨앗을 치성하며 선지식을 친근합니다. … 이같이 착한 왕과 바라문 등은 얼마나 큰 복을 얻고, 또 지은 죄를 얼마만큼 멸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세간에 나와 큰 위력을 갖추어 아침에 칠보를 모아 남섬부주에 가득 채워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보시하고, 한낮과 저녁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백천 년을 했다면, 그 사람의 복 무더기는 많겠는가, 적겠는가?

지장보살이 사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복 무더기는 헤아릴 수 없어, 셈으로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과 같다. 가령 어떤 이가 큰 위력을 갖춰 스님네를 위해 절을 세우되, 넓이가 사대주와 같고 방과 책상, 침구, 의복 음식, 약품 등 온갖 필수품을 마련하여 모든 성문, 보살과 머무르며, 부지런히 수행하되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 공양을 계속 끊이지 않으면, 그의 복 무더기가 많겠는가, 적겠는가?"

지장보살이 사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과 같다. 어떤 이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탑을 세우되 높이와 넓이가 삼천대천세계와 같다면, 앞의 모든 스님을 위해 절을 세운 복 무더기는 백분의 일, 내지 천분의 일, 백 천분의 일, 구지 분(억, 만억 등 무수한 수) … 오파니 살담분(수數의 극極)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가령 바라밀다를 얻고 팔해탈과 선정을 갖춘 아라한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섯 군데로 묶여 백천 년을 경과했다고 하자. 그때 어떤 사람이 복덕을 짓기 위해 그들을 풀어 주고 향탕에 목욕시키고 필수품을 공급했다고 하자. 그리고 열반한 뒤에는 공양하고 화장하여 사리를 거두어 칠보로서 탑을 세워 … 향, 꽃등으로 공양하였다면 앞에서 말한 부처님 사리를 위해 탑을 세운 복 무더기도 아라한을 풀어 주는 복 무더기에 비하면, 백분의 일, 천분의 일 … 구지분이나 오파니살담분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저 착한 왕(재관, 거사, 장자) 등이 열 가지 악륜에 자기도 물들지 않고 남도 권유해 악륜을 떠나게 하면, 그 얻는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 무더기보다 많되 헤아릴 수 없으며, 생긴 복만큼 죄 또한 없어지느니라."

"또 … 선남자야, 저 착한 왕과 권속 등이 나의 법을 잘 호지하며 삼승의 정법을 수호하되 성문법을 듣고 공양할 때에는, 독각승과 대승의 법에 대해 비방하지 않고 독각이나 대승의 법을 듣고 공양할 때에도 각기 비방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또 스님들에게 공급해야 할 물건을 간직하여 법답게 쓰이도록 하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사용하지도 않는다. … 또 삼승의 법을 잘 설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경하며 보호하여 힘이 돼 주고, 남으로 하여금 헐뜯고 욕하지 못하게 한다. 출가한 사람을 존중하고 위안하며 여래의 거룩한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잘 호지하며, 결코 탑을 부수지 않고 항상 스님들의 절을 잘 보호하며, 출가한 나의 제자들의 처소 또한 헐거나 없애지 않고, 속가로 돌려보내거나 그러한 일을 꾸미지도 않는다.

이러한 착한 왕 등의 권속들은 이러한 공덕을 갖추었기에, 일체 하늘, 용, 야차 등이 자비심으로 옹호하며 지키느니라. 이리하여 그들이 사는 국토와 유정들은 안온 풍성하여 즐거우며, 이웃 나라도 무력으로 침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덕을 공경 사모하여 스스로 와서 귀화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선업을 닦고 악을 고갈시켜 하늘과 사람은 늘어나며 그 신명을 수호하여 오래 살게 한다. 나와 남의 번뇌도 멸하게 하고 보리의 도와 육바라밀에 머무르며 일체 삿되고 나쁜 도를 파괴하고 생사의 바다에 오래 빠져 있지 않아,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불보살을 만나 공경하고 받들어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래지 않아 모두가 그 뜻한 바를 따라 각기 부처님 국토에 편히 살면서 위없는 정등각을 증득할 것이다."

〈송림사 주지〉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출발일 :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69만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1월23일 출발~2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남미여행 5개국 18일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빙하, 브라질 이과수폭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관광지
출발일 : 3월06일~3월23일
▶ 동참금 : 169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시 이후는 1790만원)

동유럽 5개국 11일
동유럽 5개국 헝가리-크로아티아(드브로브니크 포함)-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멋진 코스입니다.
출발일 : 6월01일~6월11일
▶ 동참금 : 549만원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테 여행 10일
돌로미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7월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환상적인 여행 일정입니다.
출발일 : 7월09일~7월17일
▶ 동참금 : 749만원

남프랑스 힐링여행 12일
니스-모나코-액상프로방스-아비뇽-아를-카르카손 등
아름다운 남프랑스만 여행하는 최상의 힐링여행
출발일 : 4월30일~5월11일
▶ 동참금 : 79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6월16일~7월01일
▶ 동참금 : 570만원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⑳ 상강_한강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상강은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자, 이 가을의 완연한 이별의 시기이다.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가을의 끝자락

상강을 맞이하니 모든 일 그치네
매서운 날씨에 기분이 슬프도다
기러기는 새끼를 데리고 이르고
황화는 뜻을 얻어 활짝 피었네
– 상강(霜降), 채지홍 〈봉암집〉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천문학, 지리, 수학에도 능통했다는 대학자 봉암 채지홍(鳳巖 蔡之洪, 1683~1741).

근 삼백여 년 전 조선의 어느 날, 뜨겁고 치열했던 여름과 풍요의 기운 넘실대는 가을도 다 사라져 버렸다.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지는 10월의 찬바람 앞에서, 그날의 봉암은 막연한 슬픔을 마주했을 것이다.

서리가 내리다

황금빛 벼로 가득했던 들녘은 텅 비어 버리고 산천을 지키던 기러기 떼는 인사도 없이 먼 곳을 향해 떠나간다. 활개 치던 지난 계절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찬바람만이 그 빈 곳을 채우는 시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마음 있을까. 다만 냉기에도 아랑곳없이 피어난 노란 국화꽃만이 그에게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했을 일이다.

오래전 조선의 한 선비가 마주한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霜降)의 모습은 그렇게 그의 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전해진다.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간.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에 든 이 절기는 그 이름으로 자신을 설명한다.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를 지나 더욱 차가워진 공기는 이제 이슬을 서리로 바꾸어 놓는다.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 동시에 완연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

어느 이른 아침, 솜털 같은 서리가 온 세상을 새하얗게 덮어 버린 날. 우리는 마침내 이 가을의 마지막을 걷게 될 것이다.

상강의 풍경

옛글에 남겨진 상강의 모습은 추수를 마치고 겨울 채비를 하는 농가의 분주함.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늦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공존한다.

이웃집과 힘을 합쳐 제 일 하듯 하는 것이
낟알 줍기 짚 널기와 마당 끝에 키질하기
한쪽에서 면화 트니 씨아 소리 요란하다
틀 차려 기름 짜기 이웃끼리 힘 모으세
등불 기름도 하려니와 음식도 맛이 나네
밤에는 방아 찧어 밥쌀을 마련할 때
찬 서리 긴긴 밤에 우는 아기 돌아볼까
타작 점심 하오리라 닭고기 막걸리 부족할까
새우젓 계란찌개 훌륭하게 차려 놓고
배춧국 무나물에 고춧잎 장아찌라
큰 가마솥에 안친 밥이 태반이나 부족하다
한가을 흔할 때에 나그네도 대접하나니
한동네 이웃하여 같은 들에 농사하니
수고도 나눠 하고 없는 것도 서로 도와
이때를 만났으니 즐기기도 같이 하세.
– 농가월령가, 9월령

정약용의 아들이자 '농가월령가'의 작자인 정학유가 남긴 상강의 모습은 생명력이 넘친다. 추수철 갈무리하는 손길은 바쁘지만 덕분에 밥상 위의 찬은 아직 풍성하다. 하지만 지나는 누구라도 함께 청해 밥을 먹다 보면 한 솥 가득한 밥도 금세 동이 나기 마련. 한 들녘에서 땅을 나눠 부치고 일손을 돕는 두레의 삶은 그렇게 나눔으로 이어진다.

'수고도 나누고 즐기기도 같이 하는' 모습이 이즈음의 활기를 전한다면, 옛 중국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김형수의 '농가십이월속시'는 상강 무렵 자연의 모습을 전한다.

'초목은 잎이 지고 승냥이는 산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겨울잠 자는 벌레들은 모두 땅으로 숨어드는 때'.

다가오는 혹한의 계절에 대비하는 뭇 생명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다. 생을 다한 것은 과감히 저물며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다.

무자비한 동장군의 세력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 생명은 저마다의 전쟁을 앞두고 비장함을 가슴에 새긴다.

가을의 모습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지구. 한강과 고급 주상복합건물의 마천루 사이에 작고 오래된 벽돌 건물이 하나 서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 시설로 만든 수도박물관이다. 하지만 수도박물관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깃대 하나.

주변의 무엇과도 어울리지 않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법한 낯선 모양새. 하지만 이 독특한 모습의 깃발이 바로 오늘날 뚝섬의 시작이자, 뿌리인 '둑(纛)'이다.

여느 깃발과 달리 날카로운 창끝에 붉은 실이 가득 매달린 모습의 둑기(纛旗). 이는 전쟁의 신 치우의 머리이자 군왕의 군령권, 동시에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상징이다.

이 일대는 조선 태조 이성계 시기부터 왕의 사냥터로 사용된 곳으로, 이성계는 매년 경칩과 상강이 되면 이곳에서 나라의 무운(武運)을 기원하는 둑제(纛祭)를 올렸다.

둑제는 유일하게 무관들이 주관해 지내는 제사로, 이성계는 둑제에 참석하지 않는 무관들에게 태형을 내릴 만큼 이를 중요시했다고. 그렇게 '둑기를 꽂은 섬'이라는 뜻의 '둑도' 또는 '독도'라 불리던 것이 오늘날의 뚝섬이 된 것이다.

겨울잠을 자던 땅속의 벌레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오는 경칩, 그리고 동면을 직전에 둔 상강에 둑제를 올린 것. 이는 양극의 자연, 아니 다른 두 세상을 앞두고 시행된 간절한 기원의 의식이었을 것이다.

붉은 둑기를 시작으로 뚝섬 한강공원을 향해 걷기를 삼십여 분. 윤슬이 반짝이는 한강을 따라 저 멀리 물빛 지붕의 건물이 한 채 보인다. 바로 국내 최초의 수상법당인 '한강 수상법당'이다.

두둥실 물 위에 뜬 이 낯선 법당은 '방생 법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심 도량이다. 이곳에선 누구라도 몸 묶인 물고기를 한강에 방생할 수 있어 불자들에게 알음알음 소문이 난 곳. 사람들은 이곳에서 한 생명을 구함으로써 자신을 구하고, 또 구한다.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무운과 함께 나라의 평안을 기원한 옛사람들. 그리고 부러 이곳을 찾아 죽음을 목전에 둔 물고기를 강으로 살려 보내는 또 다른 그들이 있다. 시공간을 넘어 교차하는 그 마음이 어떤 시간대의 혹독한 계절도, 시련도 모두 막아 줄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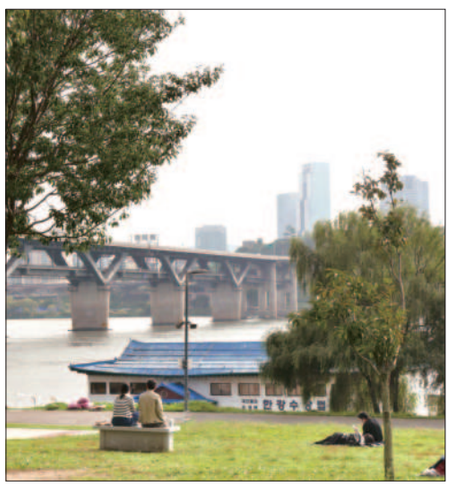
그리하여 가을이란 내내 황금빛 국화 향기로, 승리의 깃발로, 마침내 찾아올 순백의 세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작가〉


상강은 벌레들이 동면에 들고, 철새는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절기다. 한강을 따라 날아가는 철새 떼의 모습.


서울 성수동 수도박물관 앞에 자리한 둑기. 뚝섬의 유래가 된 붉은 깃발 앞으로 고층 건물들이 보인다.


한강 뚝섬공원 '뚝기축제광장'에는 뚝섬과 둑기, 둑제 등의 기원을 설명한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언제든지 방생 기도를 할 수 있는 한강 수상법당. 시민들이 수상법당을 마주 보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향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모든 행이 그대로 보살행으로 여여하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별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분별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별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거름이 되기도 하고 진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마음에 지혜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생각나는 건 모두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생각대로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을 건지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건져질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져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도 벗어질 수가 없어서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이 그대로 보살행으로 여여하게 돼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미신의 짓을 하면서 행을 똑바로 못 하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질서도 정연하고, 계율도 일체 다 지킬 수 있고, 시간도 지킬 수 있고, 말도 법으로서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의와 의리,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권을 얻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바다를 가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물이 있기 때문에 젖는 것이 있죠? 그 물은 얼음도 될 수 있고 다시 물도 될 수 있고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자 진리이자 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으면 망상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시고, 파도가 일면 아휴, 또 망상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선이 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모든 것을 놓는 데서 나도 없고 분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별을 놓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 각자를 놓지 못한다면 일체 끄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망상이고, 보는 대로 망상이 쉰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없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건 뭐며 망상이 가라앉는 건 뭡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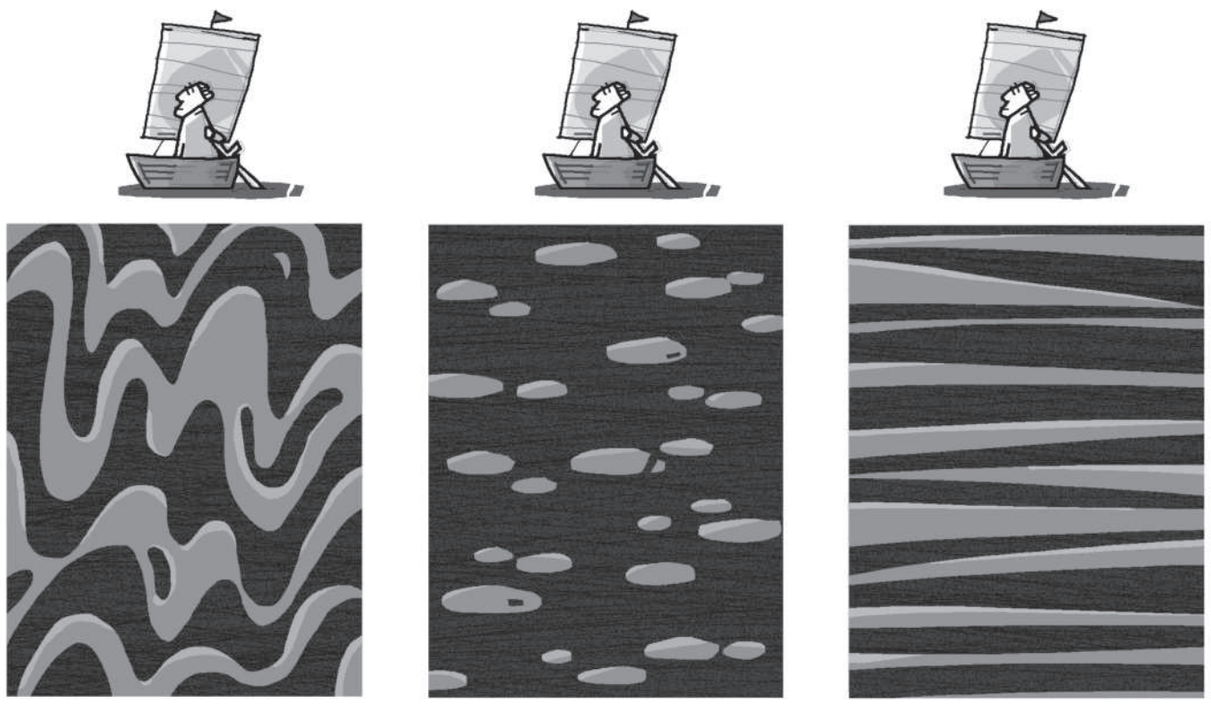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고(苦)도 없고 멸(滅)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건데 과거도 생각지 말고 미래도 생각지 마시고, 남의 소리 듣고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난 게 태초요, 내 몸뚱이가 난 것이 바로 화두요, 그리고 내 몸뚱이가 난 것이 진리요, 상대와 모든 일체가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마음은 어떠한 개별적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한데 합쳐진 것이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들어도 같이 들리는 거, 그거를 실천궁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고 고집하고 저렇게 분별하고 고집한다면 언제 인간 세상을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심법행이라고 알고 불심을 바로 무심종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심법행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는 것이 그대로 열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따로따로 분별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고생을 하시고 병고에 휘달리고 부적을 벼개 안에다 넣고 온통 붙이고 자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신 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는 것입니다.

옛날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김 진사댁이라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당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삼 대째 내내 아들 하나밖에는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독자도 그냥 끊어졌습니다, 나이 오십이 가까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항상 불공을 드리러 부처님 앞에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불공드리러 다니다 다니다 어느 절엘 가니까 그 절의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직껏 다녀도 다닌 사이가 없고 여직껏 불공을 드려도 불공드린 사이가 없어. 그러니 오늘부터 진짜 불공을 드려라."

바로 지금으로 치면 자력 신앙을 믿어라 이거죠. "일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체 거기다 놓고, 생남을 못 하는 것도 손이 끊긴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맡겨 놓아라.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면 너한테 이익이 있고 생남을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먼데로 찾아다니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항상 너희 안방도 법당인 줄 알라." 하시더랍니다. "하물며 너희 안방뿐이겠느냐. 변소까지도 법당이니라. 네가 변소 안에 있으면 그게 법당이니라." 그러시더랍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던 끝에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돼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부부가 하나는 50이 넘고 하나는 50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는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귀하게 열서너 살까지 길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병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옴쭉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려 넘어가려 하니 그냥 울고 법석들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목탁을 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지금 도련님이 다 죽게 돼서 난가가 됐는데 바깥에서 목탁을 치는 중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곤 머슴이 달려 나오니까, 그 스님은 머슴한테 말입니다, 아주 각별히 "안녕하십니까?" 하며 아주 코가 땅에 가 닿도록 절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어떤 놈이냐?" 하던 그 머슴 놈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여직껏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존대 받아 본 예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너무 고마워 거기서 그냥 털석 주저앉아서 엎드렸습니다. "세상에, 스님 같은 분이 세상천지에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날까지 이렇게 늙도록 한 번도, 하다못해 애들한테까지도 존대를 못 받아 봤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감화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극진히 모시고는 안에 대감마님한테 가서 고했습니다. "여기 달같이 밝고 지혜 있는 그런 큰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 스님이라면 도련님을 낫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서 고했습니다. 그러니깐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급하니까 말입니다. 급하면 다 그러시죠. 평소에는 가만히 웃고 즐기다가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고할 줄도 모르다가도 아, 그냥 급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급하다고 그러니 그때는 이미 차는 지나갔죠. 요런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허허허.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애가 낫는다면 내게 주겠느냐?" 하고요. "이 애는 부처님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줬어. 그러니 병이 낫게 되면 내게 주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소리를 듣고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더니 부인이 있다 하는 소리가 "내가 임신하기 전에 태몽을 꿨을 때 어느 스님이 면경 조그마한 걸 하나 갖다가 깨끗이 닦아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갖다 주더라. 그러니 부처님이 갖다 주신 애는 틀림없다." 라고 자기 영감한테 얘기를 급하게 하면서 "아들이 죽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빨리 대답하시라." 하고 독촉이 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실 부인 말 들어 보니까 죽는 거보다는 낫지." 하며 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응낙을 하고 보니까 얼마 안 있더니 숨을 돌리면서 애가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틀 사흘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병이 들었던 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닷새 후에 올 테니 아들을 달라고 그러고는 갔는데, 꼭 닷새 후에 스님이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기르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공부도 하고 나무도 하고 시키는 대로 그저 빨래도 했습니다. 그 도령의 법명은 '각성'이라고 하고 법호를 '벽암'이라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벽암 행자가 말입니다, 처음에 행자로 들어가서 조그만 게 나무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일은 시키면서 글공부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이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앉아서 뭐,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절 생활을 한 지 근 10년이 됐을 때 스님이 사흘 저녁을 내리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경(經)을 내놨습니다. 무슨 경을 내놨느냐.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설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가슴에 탁 이렇게 닿질 않고 자꾸 튕기더랍니다. 그러니깐 스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자꾸 튕기니까 말입니다. 스님을 붙잡고 또 사흘 밤낮을 내리 금강경 한 권을 읽고, 화엄경 한 권을 읽고, 또 법화경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깐에는 그걸 다 읽고 나서는 그 이치는 알겠고 하니까 이제 떳떳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사흘 후 그 스님은 그냥 열반을 하셨어요. 그랬으니 그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엉 우니깐 어느 노스님 한 분이 오시더니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백성이 풍비박산이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될 테니 내려가 보거라. 무술도 배우고 활도 쏘는 걸 배우고 다 배웠으니 나가서 나라를 건지는 데에 다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한양엘 가서 돌아보니까, 그때 마침 무술 대회가 있다고 하더랍니다. 무술 대회에 가서 무술을 하는데 어떠한 아주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오랑캐의 장군으로 신분을 숨기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오랑캐의 그 장군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칼로 하다가 나중엔 진짜 칼을 달라더라는 겁니다. 진짜 칼로 둘이 싸우다가 이 벽암 스님이 그냥 노리니까 아, 칼도 떨어뜨리곤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스님을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와서 무술 시합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서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술 시합에 이겨서 장원을 했습니다. 장원을 해 가지고서, 그 뭡니까? 또 잊어버렸죠. 광해군!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랑캐가 앞으로 느닷없이 쳐들어올 테니 성도 쌓아야 하고 군사들에게 무술도 가르쳐야 하니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오." 하니까 "이렇게 평화스러운데 무슨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무슨 성을 쌓고, 무술을 가르치고 그러느냐." 하고 아예 절레절레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만 먼 데로 도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말입니다.

떠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불심으로 무심종을 삼지 못했고, 무심법행으로서의 행을 하지 않았으며, 분별을 끊지 못하고 너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나라를 구하러 내려가거라."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려갔죠. 간단히 얘길 해야지 이거 길어서 안 되겠군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때는 인조대왕이 광해군을 내쫓고 턱 왕좌에 앉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하니까 옛날 그 직을 그냥 주면서 "그럼 빨리 도처에 성을 쌓고 무술을 가르치고 하라." 이렇게 해서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지금 저 남한산성을 제일 먼저 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인조대왕은 그리로 피난을 시켰지만 중전이나 다른 그 일가족은 다 딴 데에 있어서 피난을 못 시켰죠. 그러다가 오랑캐가 다 쳐들어와서는 거기 성도 그냥 에워싸고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모두 파김치가 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벽암 스님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말을 타고 나가면 사기가 돋궈지지 않을까 해서 말을 타고 그냥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만난 사람이 무술 대회 할 때에 만난 그 사람이더랍니다. 그 사람이 창이나 칼로 어떻게 해야 할 텐데, 딱 서서는 "스님!" 하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는 스님한테 내 목숨을 건졌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니 내가 군사들을 다 몰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스님은 돌아가시오."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군사들을 철퇴시키고 그냥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들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왕은 피난을 시켰지만 왕의 일가족이 다 붙들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만 탁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그 스님께서 불심으로 무심종을 삼으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닿질 않은 겁니다. 무심종을 삼으랬고 또 "무심법행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너의 모든 백성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또 중생들한테 전부 불씨를 심어 줄 수 있느니라.", "마무리가 잘될 것이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향이 깨끗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단 말입니다. "아하, 여기에 있는 걸 그랬구나!" 하고 종적을 그냥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 이 말씀을 해 주신 스님이 이 얘기를 마치시면서 끄트머리에 하시는 소리가 "얘야! 그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을 때에 전 우주가 들리느니라. 또 무심법행을 할 때 전 우주가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전부 같이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것이 법으로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실천궁행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문이 많아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 문이 많아서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서 찾기 어렵고, 이건 무슨 연고냐?" 이거야. 그것도 관문일 수도 있고 바로 공안일 수도 있고 화두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그쯤 해 두고요.

그러면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려운 그 도리를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연고로 그렇게 되는지? (대중 …) 그럼, 여러분은 모두 도인이니까 그대로 아시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도인일 수도 있고요, 이게 말을 잘못하면 어쩌나 해서 못 하는 수도 있고요, 허허. '분별을 놓으랬는데 말이야.' 하고선 못하는 수도 있죠. 참 이 선도리(禪道理), 이것은 우물쭈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들이대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안이 서야 당당하고 떳떳하게 깊은 주먹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되겠죠. 그럼 그건 그대로 두고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예전에 백장 선사가 이렇게 모아 놓고 설법을 하고 마치셨는데 노인 한 분만 안 가셔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스님네들 아니시더라도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건데 그 뜻은 또 진짜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노인네가 안 가요. 노장이 안 가고 있으니까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장이 하는 소리가, 자기는 과거에 이 절의 주지로 있던 사람인데 어느 학인이 와서 "이 불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 줬다는 거죠. 그 노장 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의 얘기예요. '인과에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대답 하나가, 불락(不落)이라고 한 대답 하나가 잘못되어서 아, 이거는 오백 생을 글쎄, 여우 몸을 받아 가지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님, 날 좀 살려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 하니까 "내가 그대로 스님한테 여쭐 테니 스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대로 묻더랍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대로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과에 매(昧)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이러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어둡지 않다,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끄달리지 마시라' 이런 거 얘기했죠. 즉 여여하다는 얘기죠. (중략)

그렇다면 지금 불락(不落)이냐 불매(不昧)냐? 즉 말하자면 인과에 떨어지느냐, 인과에 끄달리지 않느냐? 그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공안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공안 아님이 없고 관문 아님이 없어. 문이 없는 까닭에 전체가 문이지.

그럼 그건 그렇게 제껴 놓읍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었다. 가섭존자가 웃었다. 이런 것도 관문이 되고,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공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가섭도 없고 꽃도 없고 그 든 분도 없다면 뭐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바로 두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걸 이론으로만 알고 그 도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옆으로 꿰고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이래도 그건 학설이요, 이론이요, 부처님 제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어떻게 실천궁행의 법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망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모든 것을 놓는 데서
> 나도 없고 분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고 고집하고 저렇게 분별하고 고집한다면
> 언제 인간 세상을 벗어나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0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⑳ 의식이란 무엇인가 1

‘나’라는 느낌과 인식, 어떻게 생기는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다. 안근(眼根)과 색경(色境)이 만나면서[촉觸] ‘본다(또는 보인다)’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에 ‘나’라는 자아의식이 따라붙는다. 그러면서 ‘내가 본다’가 되면서, ‘나’는 주체가 되고 ‘보이는 대상’은 객체가 된다. 어느새 주객(主客)이 생겨나 버린다. 여기에 ‘집착(갈애)’이 따라붙으면서 그것을 ‘소유하는(또는 경험하는) 내’가 있게 된다. 결국 이렇게 순식간에 쌓아 올려진 허상은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된다. ‘나의 기억’이 되고 ‘나의 인식’이 되며 ‘나의 (세상에 대응하는) 반응체계[습習]’로 자리 잡아 결국 ‘나의 인격’이자 ‘나의 인생’이 된다.

‘나’, 조건들의 찰나적 만남의 연속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조건들의 찰나적 만남과 그 생멸’에 불과하다고 석가모니 붓다는 말씀하셨다. 그 안에 고정불변의 고갱이는 없다는 사실이다. 붓다께서는 그 실체를 똑바로 보라고 하신다. 이것을 정견(正見: 팔정도 중 하나, 제법諸法의 실상을 통찰지로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 즉, 아무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저 다양한 조건들의 이합집산이라는 ‘과정’만이 있을 뿐. 그러니까 ‘변화 중인 과정만 있다’라는 진리인데, 이것을 ‘무상(無常)’이라고 한다.

‘나’라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식되는 과정을 좀 더 들여다 보자. 오근(안이비설신)과 오경(색성향미촉)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생명체로서의 몸이 살아 있는 한, 항상 만날 수밖에 없다. 즉 촉의 생멸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무의식은 무의식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전5식과 무의식)에 ‘의식’이 개입되면서 갑자기 주변이 현실로 살아난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느껴진다. 어두운 방에 전원이 들어와 불이 켜진다. 여기에 ‘내 것’이라는 인식을 동반한 느낌[수온受蘊]과 기억[상온想蘊]이 개입하면, 이 모든 현상은 순식간의 ‘나의 경험’이 되어 버린다.



‘나’ 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강소연

자아의식: 아치, 아견, 아만, 아애

유식(唯識) 사상에서는 ‘식(識: 무명의 아는 마음)’과 ‘지(智: 지혜의 아는 마음)’를 구별하고 있다. ‘식’은 전5식, 제6식(의식), 제7말라식, 제8아뢰야식으로 분류된다. ‘나’라는 자아의식은 제7말나식으로 규정하고, 이는 의식(제6식)과 무의식(제8아뢰야식)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7말라식은 아치, 아견, 아만, 아애를 구성하는 도움 요소들로 갖고 있다.

‘나’라는 것이 강렬하게 발동할 때, 그것은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치(我癡: 내가 있다는 무명)를 바탕으로 한 아견(我見: 나의 견해가 맞는다는 강한 믿음)과 아만(我慢: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 그리고 아애(我愛: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갈구)가 요동치고 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크게 우위를 점하며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어떤 때는 아견이 강하고 어떤 때는 아만이 강하며 어떤 때는 아애가 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아견은 아만에 원인 역할을 하고, 아만은 아애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얽혀 있다. 하지만 아견이건 아만이건 아애건 간에 모두 기본적으로 아치(내가 있다)라는 무명을 바탕으로 한다.

‘나’라는 느낌과 인식을 타파하는 법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유발되는 촉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촉의 유발은 어쩔 수가 없다. 촉에서 ‘좋다 또는 싫다’라는 ‘느낌[수受]’으로 넘어갈 때, 이 느낌 속에 이미 나의 호불호라는 자아의식이 적용돼 있기에, 여기서부터는 알아차림이 가능하다. 느낌의 단계에서 알아차리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무반응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느낌을 그저 느낌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여기서 (알아차림을) 놓치면 호불호에 따른 인식과 분별[상想]로 연결이 되어, 이미 ‘행(行)’이라는 반응을 결정지어 버리게 된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순식간에 오온은 미끄럼틀을 타 버리고, ‘나’는 어느새 ‘덩어리(개념)’로 있게 된다. 오온의 무한반복적인 파도를 끊는 방법은 사념처(四念處: 신수신법身受心法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 수행이다. 이는 아나빠나삿띠(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로부터 시작하는데, 호흡을 본다는 것은 곧 신(身)념처의 시작이다. 호흡과 몸은 서로에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적 작용만 자각해도 ‘몸=나’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⑳ 편두통약 종류와 상황별 복용법

진통제·예방약·치료제 구분 복용해야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를 읽어 본 적이 있는가? 읽지는 않았더라도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 그리고 삼장 법사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손오공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씌워진 마법 고리가 함께 떠오르는데, 그 고리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고리는 ‘금고아(金箍兒)’ 또는 ‘긴고아’라고 불리는데, 손오공이 말을 안 듣거나 난폭하게 행동할 때 삼장 법사가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조여들면서 손오공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

어린 시절 필자가 보았던 TV 만화 ‘날아라 슈퍼보드’에서도 삼장 법사가 주문을 외우면 손오공이 머리를 감싸 쥐고 데굴데굴 구르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는 ‘버릇없는 원숭이 녀석이 스님 말 안 듣더니 통쾌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른이 돼 약사가 되고 이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손오공은 만성 편두통 환자가 아니었을까?

손오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인 상황이다. 500년간 오행산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자유의 몸이 됐는데, 초면인 사람이 다짜고짜 아랫사람 취급을 하며, 힘들고 먼 심부름을 함께 가자고 한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번번이 변신 요괴한테 속는 순진한 어르신을 위험에서 구해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폭력적이라고 탓하고 비난한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에서 삼장 법사가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자기 필요할 때 갑자기 주문을 외워 자기를 찾아오게 만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의 연속인 것이다. 요즘 말로 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

긴고아는 사실 조여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손오공의 통증은 스트레스성 편두통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제 편두통은 왜 생기는지, 관련된 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편두통은 과로, 수면 부족, 수면 과다, 심리적 긴장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편두통이 생길 때 우리 몸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스트레스나 흥분 등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교감 신경이 흥분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뇌혈관 역시 마찬가지다. 뇌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고, 이를 뇌에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해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 무리하게 뇌혈관을 확장하게 된다. 확장된 뇌혈관이 혈관 주변 뇌 조직을 압박함과 동시에 예민해진 신경으로 몸에서 만들어 내는 화학 물질이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는 현상이 바로 편두통이다.

편두통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약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약국에는 엄연히 편두통에 사용되는 진통제와 예방약, 치료제가 존재한다.

나프록센 소염진통제 처방전 없이 구매
플루나리진 성분 예방약 빈도·강도 줄여
트립탄 계열 치료제, 발작 시 통증 완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 중 편두통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프록센 성분의 소염진통제가 있다. 모든 진통제가 통증을 줄여 편두통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나프록센은 효능·효과에 편두통이 명시돼 있다. 제품 외부 포장에 ‘편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표기돼 있는 것은 나프록센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통증이 오래 가고 재발이 흔한 편두통 특성상 약효 지속 시간이 긴 나프록센이 다른 소염진통제보다 편두통에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약으로 편두통 예방약과 치료제를 구분해야 한다.

편두통 예방약으로는 플루나리진 성분 제품이 있는데, 이 약은 뇌혈관을 안정화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것을 막아 준다. 이 약은 매일 일정 용량을 복용해 뇌혈관 수축과 이완을 막아 편두통의 발작 빈도와 강도를 줄여 주므로 예방약으로 사용된다. 졸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 보통 자기 전 한 알씩 장기간 복용해 편두통 예방 효과를 유지한다.

편두통 치료제로는 수마트립탄, 나라트립탄, 졸미트립탄 등 제품명이 ‘~트립탄’으로 끝나는 성분의 제품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편두통의 급성 발작을 치료한다. 이 계통의 약물은 확장된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의 분비를 막아 편두통의 발작이 시작됐을 때 통증을 완화한다.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약은 편두통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복용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플루나리진 성분 약은 편두통 예방 효과는 있지만 치료 효과는 없으며, 반대로 트립탄 성분의 약은 편두통 발작 시 치료 효과가 있지만, 예방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편두통에는 약국에서 간편히 구매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예방약, 치료제가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제품을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자.

삼장 법사는 손오공을 처음 만나 마치 선물처럼 “수행 길에 어울리는 예쁜 관”이라고 속이고 긴고아를 머리에 씌운다. 대가 없는 (고가의) 선물은 없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맥락 없이 고가의 선물을 건넨다면 그 선물은 당신에게 편두통 이상의 고통을 선사할 수 있는 위험한 뇌물이 될 수 있다.

어느 식당에서 본, 마음을 울리는 글귀를 소개하며 이번 호를 마무리한다.

“소고기 사 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 예요.”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광활한 바다의 공명 통해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다

(사)싱잉볼치유의소리는 2021년 부산에서 창립해 사회 속에서 대중들과 만나며 명상을 안내하고 싱잉볼의 치유의 소리를 동반해 심신의 안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다섯 개 해수욕장인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의 모래 위에 요가 매트를 펴고 그늘막 하나 없이 햇빛을 온전히 받으며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처음 부산관광공사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았을 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바다를 마주하니 '소리에 집중이 될까? 뜨거운 모래 위에서 마음이 흩어지지는 않을까?' 등 여러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귀한 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준비를 이어 갔다.

명상 시간, 등 뒤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싱잉볼은 모래 위에서 금빛으로 반짝였다.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광활한 바다의 공명은 걱정을 단숨에 씻어 냈다. 파도 소리와 바다의 냄새, 사람의 숨결, 싱잉볼의 맑은 울림이 한데 어우러지자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순수한 마음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도 소리에 맞춰 호흡하며 감정을 정화하는 명상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순수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였고, 그들은 나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텅 빈 공간과 함께였다.

현대인들은 감정을 조절하려다 오히려 억누르며 살아간다. 답답함과 만성 피로, 스트레스 속에서 번아웃의 문턱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호흡'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명상을 시도했다. 모든 것을 내맡기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바다의 맑은 고요에 쉽게 동조됐다. 어느 순간 웅성거림도, 파도 소리도, 자연의 모든 소리도 잠시 멈춘 듯했다.

참가자들은 요가 매트에 누워 온몸으로 햇살을 맞이했다. 태양을 가슴에 품으며 갑갑함을 흘려보내고, 따뜻함으로 자신을 감쌌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순간, 스스로를 가장 깊이 위로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말했다.

"선생님, 이 시간이 제 자신을 가장 아껴 준 시간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수고를 녹여 주었다.

명상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피어난다. 바다는 스승이었다. 파도는 쉼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며 그 자체로 무상(無常)을 설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법을 전한다'는 것이 거창한 설법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숨 쉬는 일상 속에서 자비의 파동을 나누는 일임을 배웠다.

햇빛은 여전히 뜨겁고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온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다를 도량(道場) 삼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파동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이 시대에 실천하는 전법이며, 바다가 들려준 무언의 법문이다.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㉑ 달마 대사의 오도송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아름답다

마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外息諸緣)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어서
(內心無喘)
마음이 장벽 같아야
(心如障壁)
불도에 들어갈 수 있다.
(可以入道)

달마 대사(達磨大師, ?~528)는 중국 선종의 초조이다. 남인도 향지국의 왕자로 태어나 출가해 반야다라(般若多羅)의 제자가 되어 석가모니로부터 불법을 정통으로 전해 받은 28대 조사가 되었다.

그가 중국에 선불교를 전래하기 위해서 건너온 것은 남북조 시대이다. 양(梁)나라 수도 남경에서 외형적인 불사를 자랑하는 양 무제(武帝)를 만나 "진정한 공덕은 마음을 깨달아 견성성불하는 것입니다. 절을 짓는 외형적인 불사는 공덕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무공덕(無功德)'의 법문을 남기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 벽을 보고 앉아 참선하는 면벽 9년 수행을 했다.

위의 선시는 〈경덕전등록〉 '달마 대사전'에 나온다. 혜가가 달마 대사를 찾아가 "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달마 대사가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마음을 편안케 해 주겠다"고 말했다. 혜가는 "아무리 찾아도 그 불안한 마음의 실체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때 달마 대사가 혜가에게 내려 준 16자 심법이다.

1구 '마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는 생각으로 외부의 인연과 대상을 끊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고, 2구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어서'는 마음속의 욕망과 망상으로 일어나는 동요를 정지시키는 수행이다.

3구와 4구 '마음이 장벽 같아야 불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장벽처럼 무심(無心)하여 분별심이 없어야 깨달음의 경지인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비교하고 차별하는 분별심에 의해서 좋고 싫은 마음이 생겨서 고통이 발생한다.

밖의 경계인 외경(外境)에 대해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부동불(不動佛)이다. 황금을 돌처럼 보고, 미인이나 문둥이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면 분명히 부처이다. 마음속 내심(內心)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삼독심의 불길이 꺼진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른 아라한 성자이다.

선종은 문자로 이루어진 경전에 의지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처와 똑같은 불성이 있음을 발견해 참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心定]하고, 집중(삼매)해 그 마음을 드러내 부처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선종은 깨달음[見性]과 실천[成佛]을 강조한다. 자기 스승이 생불조사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삶의 현실과 내 마음속에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無自性]이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도 실체가 없는 망상의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객진(客塵) 번뇌임을 알면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다. 마음만 내려놓고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면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가르침이다.

달마 대사의 이 가르침은 중국 선 수행의 기초가 되었다. 달마 대사의 벽관 수행법은 선종의 수행 원리인 무념(無念), 무심(無心), 무상(無相)의 기초가 되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뒤숭숭하다. 흑백과 선악이 혼잡하여 헷갈린다. 이럴수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세상사에 동요하지 말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빠져서 헐떡거리지도 말자.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아름답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스님, 은둔자→일상형 멘토로

"욕망의 주인이 되세요. 그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 MBC에서 방영 중인 금토드라마 '달까지 가자' 10화에서 스님이 템플스테이 참가자 세 주인공들에게 전한 조언이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스님들의 이미지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형 사극에 나타난 스님의 이미지는 은거 도인이거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스님들은 현대극에서 일상 속 멘토이자 상담자 역할을 했다. 대표적 작품이 '나의 아저씨(tvN·2018)'로, 극 중 겸덕 스님은 설법보다 생활 조언과 윤리적 균형감을 주는 '일상형 멘토'로 그려진다.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장르 드라마 속에서 역할 비중이 커지며 서사 전개의 허브 역할을 맡기도 한다. '빈센조(tvN·2021)'에서는 상가 구성원으로 스님들이 등장해 주인공이 나아갈 수 있게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

다양한 미디어 내에서 스님의 이미지가 '은둔자'에서 '일상형 멘토'나 '이웃'으로 확장·소비되는 점은 불교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긍정적 신호다. 이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던 불교계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대표 관광·문화체험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 내 '스님과의 차담' 프로그램의 역할이 한몫했다고 보여진다.

최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CGV동대문과 협업해 성황리에 진행 중인 '고요극장'의 중심에도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들의 상담과 명상지도가 있다. 대다수 참가자들도 "스님과의 상담을 위한 접근성이 높아져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중 프로그램에서 지도법사 스님의 역할과 역량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불교와 스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을 견인한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더불어 지속적인 역량과 공감 능력 강화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투게더 成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법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불교학과 불교사상은 시대를 흘러오면서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 반역의 역사이다. 특히 대승불교 불교학은 각양각색의 종파와 사상이 발전하면서 수행법 또한 다양하게 발전했다. 그 어떤 수행법이든 불교 진리[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금강경〉 23품에서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是法平等 無有高下)'고 했고, 〈능엄경〉에서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은 두 길이 없으나 방편 따라가는 길에는 여러 문이 있다(歸元性無二 方便有多門)'고 했다. 곧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똑같지만, 그 방법에는 여러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 종파인 조계종은 선(禪)을 표방하는 선종이지만 통불교적인 성향이다. 그러기에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참선·염불·간경·주력을 내세운다. 깨달음이라는 그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어느 누구라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는 방편적인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대승(大乘)이고, 일승(一乘) 사상이다.

중국은 당나라 말기부터 시작해 염불 정토사상이 발전하면서 현재까지 아미타 신앙이 보편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염불 정토보다는 선을 우위에 두었던 터라 염불을 낮은 근기로 보는 성향이었다. 필자가 출가하던 무렵 오롯이 승려는 출가하면 선방에 가야 하고, 선방 장판에 앉아야

불교 진리 누구에게나 평등해
정진하려는 마음 있으면 참불자
어떤 수행법이든 인정·격려해야

'중다운 중'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조선 중기 서산 대사 휴정(1520~1604)은 "사람의 근기가 각각 다르므로, 혹 어떤 이에게 타력(他力)이 필요하다면 염불·주력·참회·보시 등 다양한 수행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참선하는 수행만이 최고이고, 참선하는 스님만이 최고 수행자라는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이다.

근대의 큰스님 중 한 분인 수월(1855~1928) 스님은 천수다라니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또 중국의 허운(1840~1959) 스님도 〈지장경〉을 독송하는 와중에 삼매에 들었다.

이렇듯 경전 독송으로도 주력 수행으로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출·재가자 누구라도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간에 정진코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불자라고 본다. 어떤 법이든 진리 차원에서는 똑같다. 법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차별하고 있다. 곧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경전 공부든 염불이든 참선이든 간에 자신이 선택해 걷고 있는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타인도 그럴 것이다. 〈금강경〉에서 '법상(法相) 조차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선택해 공부하는 것만이 최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해 공부하는 것도 최상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물론 근자는 염불을 낮은 근기로 보지 않으며, 중생 구제 차원의 포교도 강조하는 시대이며, 마음을 편안케 하는 현대 명상도 날로 발전되는 시대이다. 그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법을 따르든 서로 인정해 주고, 격려하며, 보듬어 주어야 우리나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세상은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부른다. 또 '정상'이라는 말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를 교정하려 한다.

'정상화'란 말은 본래 1960년대 북유럽에서 장애인을 사회 속에 포함하기 위한 복지 개념으로 시작됐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 생각은 처음에는 평등을 향한 진전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처럼 돼야 한다'라는 또 다른 강요로 변질됐다. 이는 마치 중생 구제를 말하면서도 자기 수행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오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각각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른 삶을 산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존재의 인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상화라는 명제 아래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삶에 맞추려는 태도는 장애인의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고 하나의 모습으로 동일시하려는 집착이라 할 수 있다.

평등은 동일함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녔다고 했다. 그 불성은 몸의 장애나 인지 정도, 사회적 능력으로 나뉘지 않는다.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가 뚜렷이 드러난다.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비장애

평등은 차이 인정에서 비롯
통합교육, 형식만 남은 포용
정상화 아닌 연기의 시선 要

중심의 규범 틀 속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함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아져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장애 학생은 끊임없이 조율되고 교정된다. 이것은 존중의 교육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포용일 수도 있다.

불교의 자비적 측면에서 존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 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향해 끊임없이 "극복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깨달음은 결코 무언가를 '극복'하는 데 있지 않다. 고통을 밀어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 있다. 장애를 극복으로만 이해하는 사회는 장애인의 삶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한다. 그 삶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가까워질 때만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이는 무명(無明)의 또 다른 형태다.

진정한 포용은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삶이 다른 삶보다 더 '정상적'일 수 없다. 장애인의 삶은 결핍된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그 안에도 완전한 불성이 있고, 그 삶 또한 부처님 법의 한 모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화를 향한 노력보다 연기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차이를 병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의 실천을 배우는 것이 불교적 포용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같음'이 아니라 '함께함'의 평등을 배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장애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다양함과 깊이를 성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실천, 즉 고통을 나누고 함께 깨어나는 공동체적 깨달음이 가능할 것이다. '정상화'를 넘어서는 길은 바로 여기,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연으로 삼는 마음속에 있다.

社 說

종교 아닌 헌법 위에 서라

기독교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 차례나 불교계를 찾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정치할 땐 개인의 종교 신념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간 그의 발언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정치 지도자의 언행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들이다.

정치인은 특정 종교의 언어로 국가를 해석하거나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공당의 대표로서 입에 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불교계의 진정 어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성경 말씀'을 거론했다. 이는 그의 예방이 얼마나 진정성이 결여된 행보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분명히 선언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정신적 토대다. 정치가 종교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거나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퇴행한다. 그러한 퇴행을 막기 위해 헌법은 정치로부터 종교를, 종교로부터 정치를 분리해 놓았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모든 종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에게는 국민의 신뢰가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장동혁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보리수아래 창립 20돌에 부쳐

부처님의 일대기 관련 책을 읽다보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목도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승단 구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했다는 데 있다. 부처님은 장애인도 승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대표적 사례가 아나율과 주리반특가다. 정진 중 아나율 존자는 시력을 잃게 됐으나 지혜의 눈인 천안통을 열어 훗날 '천안제일'로 불리게 된다.

주리반특가는 우둔해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열심히 청소하며 부처님이 주신 게송을 외우던 주리반특가는 문득 깨달아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두 선지식의 이야기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중생이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대표하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보리수아래'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보리수아래는 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5년 창립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신행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척박한 장애인 포교 현장에서 전법의 등불이 2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보리수아래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컸다. 장애인 중 후천적 요인의 비율은 88%로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애인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불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무장애'는 사회적 트렌드가 된지 오래인 만큼 불교계 내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길 기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계 품서식 봉행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 11월 10일 월요일 11시
장소 :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CGV동대문 x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고요극장
: 도심에서 즐기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EVENT INFO
진행극장 | CGV동대문
진행일시 | 10/25(토), 11/1(토)14:00~15:30
찻잔 속 마음 상담소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관계 속 고통, 공감, 이해를 다루는 토크 콘서트
마음 평안에 이르는 길
음식, 싱잉볼 등을 활용한 다양한 명상법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실천가능한 선명상을 배워 나의 행복을 찾아봅니다
지금 예매하기